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8

06

커버스토리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토리노 수페르가 극장의 오스카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유럽 박물관 기행

민헨 알테 피나코테크에서 만난
비로크의 행복한 화가 루벤스



미하일 플레트네프

사무엘윤
Samuel Youn

&

Jihye Son
손지혜

DUO CONCERT

2018.6.15(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_ 김혁기
연주 _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
The Richard Strauss Cycle V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소망**

2018. **6.8**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첼로 양성원


Program

윤이상 | 예악 禮樂
Isang Yun | Réak

슈트라우스 | 로망스 첼로 양성원
R. Strauss | Romanze in F major

슈트라우스 | 「돈키호테」 첼로 양성원 & 비올라 이성호
R. Strauss | "Don Quixote", fantastic variations, Op.35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국악으로 하나되는

Dream Concert

“드림콘서트”



2018. 6. 7(목)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수산회관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예술감독 김용철

2018

6.12 화 1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6.21 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6.26 화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2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62



부산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J. BRAHMS

독일 레퀴엠 Ein Deutsches Requiem Op.45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레퀴엠



지휘 전진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김동섭

/ 부산시립합창단
/ 춘천시립합창단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8.6.29.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주관_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권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매_ www.bscc.or.kr 문의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할인_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경로우대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외국인

 셔틀버스 운행(무료)·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18:30 /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Contents

08



16



2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18년 6월호 통권 31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10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6월 공연캘린더

14 BACKSTAGE OPERA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토리노 수페르가 극장의 오스카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16 MUSEUM OF EUROPE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에서 만난
바로크의 행복한 화가 루벤스

20 OUR CULTURE PLACE

자연과 뉴미디어, 인간 중심의 문화플랫폼
부산현대미술관

22 TRAVEL WITH YOU

천년의茶香이 가득한 야생차의 본고장
하동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27 PREVIEW

34 ISSUE

2018 제27회 부산무용제
2018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박물관 2018년 특별기획전 ‘Africa’

38 REVIEW

40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55 BOOK

새로 나온 책

56 BSCC NEWS

부산문화회관 소식

57 SNS SUPPORTERS

SNS 서포터즈 관람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러시아 예술의 살아있는 심볼’이라 극찬받는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다재다능한 천재 마에스트로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6월 27일 부산을 찾는다.

그들의 연주는 너무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청중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브닝 스탠다드

이제는 모스크바의 어떤 오케스트라도 이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

모스크바 타임즈

러시아 예술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심볼

마이애미 헤럴드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인간이 염원하는 완벽에 가장 가깝다.

트리니티 미러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난 1990년 결성한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역사상 첫 민간 오케스트라로,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단기간 내에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러시아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바티칸과 이스라엘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이후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가장 짧은 기간 내 가장 성공한 민간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러시아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음반 작업 또한 그동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는데, 창단 후 1년 만인 1991년 출판한 그들의 첫 음반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그라모폰지로부터 “실로 엄청난 경험이었다. 인간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극찬과 함께 레코딩 역사상 최고의 차이콥스키의 ‘비창’ 음반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음반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러시아안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로 그



Mikhail Pletner



래미를 수상한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그라모폰지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2년, 2015년 4차례 내한 공연을 통해 완벽한 해석과 사운드로 한국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설립한 거장 미하일 플레트네프는 지휘자로 서뿐만 아니라 현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솔리스트로서도 활약했다. 1978년 차이콥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1세의 나이로 우승한 후 피아니스트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플레트네프는 음반작업과 연주회를 통해 광범위한 레퍼토리들을 탁월하게 해석해 내는 연주자로 정평을 얻었다. 더 타임스로부터 “경이로운 비르투오시티와 놀라운 상상력을 타고났다. 극한의 아름다움이다”라며 극찬받기도 한 플레트네프는 1996년, 스키라티 소나타 음반으로 그라모폰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으로 직접 편곡하고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연주한 음반으로 그라미상을 수상했다.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키며 지휘자로서의 완벽한 역량을 인정받은 미하일 플레트네프는 현재도 예술감독 겸 지휘자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부산을 찾는 미하일 플레트네프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그들의 장기인 러시아 작곡가 작품들 중 글라주노프 모음곡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와 더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47’를 들려준다.

‘21세기를 대표할 가장 촉망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라 호평받는 협연자 에스더 유는 12세 때 제10회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주니어부문 1위(2006년) 입상을 시작으로 2010년, 16세의 나이로 제10회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한 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입상에 이어 2014년에는 한국계 최초로 세계적인 방송 BBC(영국 방송협회)가 선정한 ‘BBC 신세대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에스더 유는 현재 유럽을 주요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BBC 신세대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한 피아니스트 장 쥐, 첼리스트 나레크 하크나자리안과 함께 Z.E.N. 트리오 멤버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6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VIP회원 30%,

스페셜-예술단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프로그램

A.글라주노프/모음곡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

J.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I.스트라빈스키/불새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

2018 JUNE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제38회 전국서도민전
6월 2일(토)-6월 6일(수)
(사)한국서도예술협회(441-7081)

윤김현
6월 8일(금)-6월 14일(목)
용두산 미술의 거리 작가회
(010-5517-9822)

한·중·일 우수작가초대전
6월 15일(금)-6월 19일(화)
(사)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

부산광역시 단위수석회 합동전시
6월 23일(토)-6월 24일(일)
부산석향회(010-3853-5481)

3

제5회 벨라보체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대 초대/벨라보체합창단(010-5764-2866)

4

5

부산예술고등학교 2018 예술제
제31회 음악 정기연주회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10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다' 17:30
중 전석 1만원/아컴퍼니 챔버앙상블
(010-5246-5651)

11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대 부산MBC(760-1126)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중 부산MBC(760-1126)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첼 부산MBC(760-1126)

12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대 부산MBC(760-1126)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중 부산MBC(760-1126)

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첼 부산MBC(760-1126)

17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 음악회 '백년의 약속' 19:30
대 초대/그룹씨어터 반도(02-6956-0227)

18

19

부산시어머니 합창페스티벌 17:00
대 무료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단장 김정옥(010-3833-0621)

소 소프라노 전월선 초청콘서트 19:30
중 3만원 · 2만원/부산문화(1600-1803)

24

25

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2018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19:30
대 무료/해군작전사령부(679-6621~4)

TIM 스트링 콰르텟 창단 기념 연주회 19:30
첼 양은정(010-5318-0295)

WED	THU	FRI	SAT
		<p>1</p> <p>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Dance Utopia'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이성미, 최선경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초대/이성미(010-5634-1086)</p>	<p>2</p> <p>노엘합창단 제59회 정기연주회 '존 루터의 Feel the Spirit' 19:00 초대/노엘합창단(010-5796-1115)</p>
<p>6</p>	<p>7</p> <p>2018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대 무료(선착순 입장) 닥터스 심포닉 밴드(010-9458-9258)</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하나되는 드림콘서트' 19:30 중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8</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 '소망' 19:30 대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제33회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010-5468-4658)</p>	<p>9</p> <p>제3회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19:30 중 초대 동아 피아노 앙상블(010-2333-2544)</p> <p>윤민선 & 전숙영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6:00 초대/전숙영(010-5019-7274)</p>
<p>13</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대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중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초 부산MBC(760-1126)</p>	<p>14</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대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중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초 부산MBC(760-1126)</p>	<p>1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무엘 윤 & 손지혜 듀오 콘서트' 19:30 대 5만원 · 3만원 ·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합창연주회 '사계절의 노래'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합창교류협의회(010-8520-4649)</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초 부산MBC(760-1126)</p>	<p>16</p> <p>부산시의사회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사계절의 하모니' 19:30 중 무료 부산시의사회합창단(010-9356-1834)</p> <p>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17:00 초 전석 1만원/김은진(010-9361-0091)</p>
<p>20</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대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중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초 부산MBC(760-1126)</p>	<p>21</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대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중 부산MBC(760-1126)</p> <p>2018년 제35회 부산음악콩쿠르(결선) 초 부산MBC(760-1126)</p>	<p>22</p> <p>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19:30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3</p> <p>제15회 부산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대 무료/부산하모니합창단(010-2593-1651)</p> <p>춤, 보고 듣고 느끼다 15:00, 19:00 초대/문화마루(914-3370)</p> <p>박혜련 바이올린 독주회 17:00 초 박혜련(010-9650-0720)</p>
<p>27</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하일 플레트 네프 &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19:30 대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8</p> <p>제1204회 MBC목요음악회 '우크라이나 체르 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대 1만원 · 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2018 제27회 부산무용제 19:00 중 부산무용협회 (632-5116)</p>	<p>29</p> <p>부산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 '독일레퀴엠' 19:30 대 2만원 ·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2018 제27회 부산무용제 19:30 중 부산무용협회 (632-5116)</p> <p>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19:30 초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30</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8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7:0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p>
<p>손은혜 & 김은정 듀오 리사이틀 19:30 초 전석 1만원/김은정(010-2802-1672)</p>			

06

2018 JUNE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가야대학교 졸업작품 전시회

6월 1일(금)-6월 3일(일) 2층 전시실
박라애(010-3977-7543)

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만들기대회 및 체험교실'

6월 2일(토) 오후 1:00 1층 전시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612-2604)

부산수석회 상반기 전시회

6월 4일(월)-6월 10일(일) 2층 전시실
이재유(010-3868-2686)

한국해석회 회원전

6월 5일(화)-6월 10일(일) 1층 전시실
이점식(010-3868-2686)

한필서예작가전

6월 11일(월)-6월 17일(일) 1, 2층 전시실
정천수(010-7756-5636)

합과협

6월 19일(화)-6월 24일(일) 1층 전시실
곽수경(010-4640-3756)

3

4

5

2018 제32회 부산청소년연극제_만덕고등학교
'죽은 시인의 사회'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0

11

12

앤서니 브라운 체험뮤지컬 '신비한 놀이터'
11:00, 14:00, 16:00
대 5만원 · 4만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

2018년도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졸업작품발표회 17:00
소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010-5874-0135)

17

18

19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14:00, 18:00
대 14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24

25

26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오로라공주'
12:00, 14:00
소 전석 2만5천원/인우이엔티(1688-5246)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 10:00
대 무료/부산광역시(888-3146)

제19회 부산119 소방동요경연대회 13:00
대 무료/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760-3121)

69주기 백범 김구선생 서거 추모제 10:00
소 무료/우리물산장려 운동본부(255-8064)

김순경 개인전
6월 18일(월)-6월 24일(일) 2층 전시실
김순경(010-8558-9407)

제34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6월 25일(월)-6월 29일(금) 1층 전시실
부산사진협회(631-4111, 888-5038)

1

2018 제32회 부산청소년연극제_부산정보고등학교 '맹진사댁 경사'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

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09:00
대 무료/부산국악협회(644-5211)

매직 & 버블쇼-부산 11:00, 13:00, 15:00
소 전석 2만원/극단 오즈(1661-6702)

6

가족뮤지컬 '시크릿 쥬쥬' 11:00, 14:00, 16:00
대 5만원 · 4만5천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

7

2018 제32회 부산청소년연극제 개성고등학교 '데스데이'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8

2018 제32회 부산청소년연극제 개성고등학교 '데스데이' 16:00, 19:00
소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9

앤서니 브라운 체험뮤지컬 '신비한 놀이터' 11:00, 14:00, 16:00
대 5만원 · 4만원
극단 바위처럼(1577-4868)

13

14

15

16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15:00, 19:00
대 14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20

보훈가족 실버 패션쇼 15:00
소 무료/부산지방보훈청(660-6272)

21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법정교육 09:30
소 초대/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636-4213)

22

2018년 부산자활한마당 15:00
대 초대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852-0532)

23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오로라공주' 11:00, 14:00, 16:00
소 전석 2만5천원/인우이엔티(1688-5246)

27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음악회 18:30
대 초대/김원묵기념 봉생병원(664-4041)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라라랜드' 14:00
소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4)

28

나라사랑다짐대회 11:00
대 무료/부산광역시(888-3146)

제3회 동요할아버지 작은 음악회 13:30
소 부산광역시 실버예술단(635-5734)

29

가족뮤지컬 '뽀뽀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10:15, 11:20
소 전석 1만원/극단 님비곰비(02-882-9001)

30

2018 페스티벌 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 전국투어-부산 11:00, 14:00, 16:30
대 5만원 · 4만원 · 3만원
(주)엠플러스(1544-3901)

토리노 수페르가 극장의 오스카

베르디의 가면무도회

66

네? 오스카를 3시간 동안
가르쳐 바로 공연에
투입시키라고요?

99

지난 198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1908-1989)이 지휘하는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Un ballo in maschera)'에 소프라노 조수미가 주인공 리카르도의 시동 역인 오스카 역할을 맡았으나 거장 카라얀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소식을 고등학교 시절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다. 당시 처음 들어보는 그 제목은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곧이어 카라얀 대신 또 다른 거장 게오르그 솔티(Georg Solti, 1912-1997)의 지휘와 리카르도 역에 플라시도 도밍고(Placido Domingo, 1941~현재), 레나토 역에 레오 누치(Leo Nucci, 1942-현재) 등 세계 최정상 성악가들과 함께 조수미가 무대에 서게 되었고, 곧바로 LP음반이 출시되면서 곧바로 구입해 들을 수 있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라트라비아타'와는 또 다른 베르디의 음악은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는 2막 1장 주인공 남녀의 2중창에서 2장으로 넘어가 레나토의 아리아 'Eri tu...(바로 너였었구나...)'와 부정을 저지른 그의 아내 아멜리아가 부르는 아리아 'Morro, ma prima in grazia...(죽겠어요, 그러나 그전에 아들을 한번 보게...)'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리하다. 사실 스웨덴 국왕 구스타보 3세의 암살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으나 당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배경을 미국으로 옮겨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가 사랑한 자신의 심복인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와의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 3막 질투에 눈이 먼 레나토의 총에 맞아 죽어가며 '나는 네(레나토)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면서 막이 내리는 비극인데, 그 안에 많은 정치적 갈등과 리카르도와 아멜리아, 레나토의 심리적 갈등이 잘 숨어 있다. 특히 무당 울리카의 접신 장면은 이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와 극의 절망을 잘 묘사해준다.

지난 2003년, 당시 나는 이탈리아 연출가 프랑코 바키(Franco Vacchi, 1927-2008)의 지도 아래 그의 협력 연출자로 활동을 막 시작했다. 내 스승은 늘 내가 이탈리아에서 꼭 연출로 데뷔하기를 바랐고 여러 극장장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자신보다 내게 일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이겠는가? 늘 번번히 동양인에, 너무 젊고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때마다 '넌 꼭 이탈리아 극장에서 연출을 해야 한다며 나를 격려해주셨고, 그 격려에 힘입어 2015년 나폴리 지역 바로 아래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에서 연출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에 피소드는 지난 2017년 8월호 지면에 소개한 바 있다. 아무튼 당시 연출가로는 아니지만, 이리 스승의 노력의 결과로 토리노에 있는 수페르가(Superga) 극장과 알레산드리아 시립극장에서 한국인 최초로 협력연출

가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가면무도회'는 토리노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을 하는 동안 스승님은 내가 연출을 맡지 못한 것에 대해 극장장에게 불만이 많아 심기가 좋지 않으



2003년 토리노 Superga 극장 '가면무도회' 리허설 당시 연출가 故 Franco Vacchi와 함께 한 필자

했다. 그래서 나를 띄워주시기 위해 내게 많은 권한과 아이디어를 주며 '이게 다 의주가 한거야'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기에 바쁘셨다. 작업이 잘 진행되면 기쁨에 차 내 볼을 톡톡 치시며 아침에 만날 때마다, 일이 끝날 때마다 '브라보!'하며 격려해 주셨다. 공연 준비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늘 발생하는데, 오스카 배역을 맡은 성악가 때문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극장장의 조카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실력을 의심받고 있었던 그 오스카는 자신이 없었는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서 연습내내 소리는 내지 않고 Mezza voce(중간 소리 음량)로 연습에 임하면서 극장장을 제외한 우리 제작진들의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켰다. 오페라 연습을 하는 경우, 성악가가 액팅 연습을 할 때는 꼭 풀 보이스로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안하는 것은 다른 배역과 제작팀에게 시너지 반감 효과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자신의 극대치를 끌어내기 위해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뭐, 암튼 자신이 컨디션 조절하는 거니까..., 더 이상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종 연습 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공연 직전 꼭 해야 하는 지휘자 주도의 오케스트라 음악 연습과 최종 제너럴 리허설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히 지휘자가 성악가의 성량을 알아야 전체적인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 상대 배역들 역시 앙상블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휘자와 연출자는 캐스팅 체인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타를 찾기에 이르렀다. 결국 로마에서 오스카 전문 가수를 찾았는데 기차, 비행기편 시간이 맞지 않아 당일 점심때나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두 분들은 잘 하는 사람이 오는 게 낫다고 하면서 당일에 그녀 혼자 가벼운 리허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나는 역시 이탈리아라니까! 하면서 그 즉흥성에 감탄 반 두려움 받을 느꼈다.

그런데 당일이 되어 스승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나보고 오스카를 연습, 훈련시켜 공연에 오르게 하라는 것이었다. "네? 저보고 오스카를 3시간 동안 가르쳐 바로 공연에 투입시키라구요? Mamma mia!!..." 사실 나는 이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의상, 조명, 분장, 소품, 음악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알고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스승께서 일부러 극장장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키지 않았나 싶다. 나는 Patrizia라는 그 소프라노에게 차근차근 작품의 콘셉트와



서울시립오페라단 '가면무도회'(2007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울리카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이아경(경희대학교 교수)의 점선 장면

성격 분석, 그리고 동선에 관해 설명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용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공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스마트한 오스카는 방방 뛰어나다 하며 작품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고, 그날 출연한 주역들도 최상의 기량을 뽐내면서 성공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나는 그때 그곳에서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경험을 통해 캐스트들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늘 대비하는 습관, 즉 대안과 대비책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하게 됐다. 이후 수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일을 거울삼아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생긴 것이다. 공연을 만들면서 생기는 수많은 긴박한 에피소드를 모두 그 무대에 담아내어 더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연출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 관객들은 오는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이 작품을 연출하지는 못했지만, 토리노 극장에서 작업했던 그 생생했던 나의 경험들은 언젠가 무대에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에서 만난 바로크의 행복한 화가 루벤스

10년의 긴 외국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해 인문학 강사로 활약한 지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악을 전공하고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라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왜 다른 일을 하냐는 질문이다. 그러면 필자는 유학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준다. 유학 시절 학교에서 가곡 수업을 할 때 피아노를 전공하는 이탈리아 남학생과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는 로마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너는 대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탈리아 책임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피아노는 왜 치냐고 물어보니 이탈리아 헌정 역사상 피아노를 잘 치는 총리는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국회 의사당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하고 싶다고 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에게 이 친구와의 만남은 큰 충격이었고 그 때부터 내 생각의 범주를 보다 넓게 가지며 살아갔던 것 같다.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으면 필자는 딱 한마디로 마무리한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글·사진 김성민 (쥬류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1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2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전경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에서 화가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를 소개하려고 한다. 역사상 많은 화가들이 당대 인정을 받지 못해 정작 본인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산 경우가 많은데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루벤스는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였으며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인문학과 법을 전공하는 학자 가문이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고향 벨기에 안트베르펜을 떠나 독일로 가게 됐다. 하지만 루벤스가 10살이 되기 전 아버지는 아내와 두 명의 어린 아들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을 이끌고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오게 된다. 루벤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위해 온갖 굶은일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고 결국 루벤스의 형은 유명한 인문학자가 되었고 루벤스는 22살에 정

식 화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루벤스는 좋은 스승을 만났다. 루벤스는 진정한 고전회화를 공부하려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야된다는 조언을 듣고 이탈리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실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창조한 것인데 그 예술이 탄생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두꺼운 음악사 책으로 외우기만 했지만 필자 역시 이탈리아에 살다보니 로마에서는 왜 교회 음악과 성악 음악이 발달했고 베네치아에서는 왜 세속 음악과 기악 음악이 발달했는지 금방 알게 되었고 비발디의 음악이 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는 바로 이해하게 되었다. 루벤스 역시 20대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보내면서 이탈리아 고전회화를 제대로 공부했고 특히 베네치아의 티치아노라는 화가의 색채감에 크게 매료되었다.

알테 피나코테크의 대표작

‘인동덩굴 그늘 아래(Honeysuckle Bower 1609)’

어느 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편지를 받은 루벤스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빠르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루벤스는 크게 상심하게 된다. 상심한 서른한 살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형이 생각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고 친형의 중매로 루벤스는 시정 관리의 딸이었던 이사벨라 브란트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루벤스는 그림을 남겼는데 그 그림이 알테 피나코테크에서 가장 유명한 1609년에 그려진 ‘인동덩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이다. 인동덩굴은 우리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영원을 뜻하는 푸르른 색과 잘 감기는 특징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상징한다. 그림 속 두 남녀는 당시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처럼 오른손을 포개어 결혼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공간이 부족해 루벤스의 모자나 이사벨라의 치마가 잘려있다. 이런 구도는 두 사람의 전체 모습보다 그림 한가운데 포개져 있는 결혼을 상징하는 두 손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당시 노총각 루벤스는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했나 보다). 루벤스는 아내보다 조금 위쪽에 앉았다고 가정의 수호자로 칼을 차고 있는데 이런 구도는 남성이 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위치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역동성을 그림에 부여한다.

3





3 루벤스 전신실

(루벤스는 바로크의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신화 주제와 대형작품을 주로 그렸다)

4 인동덩굴 그늘 아래(1609)

5 루벤스의 두 번째 아내 푸르망과 아들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위 말은 루벤스가 남겼던 말이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기록을 보면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고 해가 뜨면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점심 이후 잠깐 쉬었다가 개인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고 과식이나 과음은 혐오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언제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루를 마감했다고 한다. 루벤스는 그림만 잘 그렸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화가이자 건축자였고 지역 인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백작부인의 시종으로 일하면서 왕실과 귀족의 법도를 배웠고 학생 시절 공부한 라틴어를 바탕으로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잘 융합해서 영국, 스페인, 플랑드르 지역의 국제 외교관으로 활약했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다. 루벤스는 40대 후반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고 약간의 슬럼프를 겪었으나 재기해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63세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더 행복 하세요

유럽에서 10년을 살면서 참 다양한 곳을 여행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눈으로 담았던 여행지의 기억보다 낯선 곳에서의 우연한 만남이나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더 오래 남게 되는 것 같다. 예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여행할 때 일이다. 낯선 그곳에서 자유여행 중인 70대 한국 어르신 두 분을 만났다. 나의 작은 도움에 감사해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 70 정도 살아보니 살면서 실패했던 일들은 별로 후회로 남지 않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은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말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여행을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절대 후회 남기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는 덕담을 나에게 해주셨다. “누구보다 더 행복 하세요.” 이 단순하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행복한 화가 루벤스와 함께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OUR CULTURE PLACE

그곳에 가면

자연과 뉴미디어,
인간 중심의 문화플랫폼

부산현대미술관

문화 기반 시설이 척박한 서부산권 지역에 새로운 단비가 되어줄 부산현대미술관(관장 김성연)이 6월 15일 개관한다.

이번 부산현대미술관의 개관으로 부산은 기존 부산시립미술관과 더불어 전국 광역자치체로서는 최초로 두 곳의 시영(市營) 미술관을 갖게 됐다. 특히 부산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된 미술관으로, 오는 9월 9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18 부산비엔날레' 전용관으로도 운영된다. 또한,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을숙도의 자연, 환경, 생태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미술관이자 서부산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커뮤니티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전시와 함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1. 부산현대미술관
2. 패트릭 블랑 '수직정원'
3. 토비아스 레베르거 '토비아스 스페이스'
4. 어린이예술도서관



2

낙동강 하구 을숙도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현대미술관은 29,900㎡의 부지에 연면적 15,312㎡ 규모로, 전시 공간(5,780㎡)과 수장고, 강의실 및 세미나실, 체험실, 어린이예술도서관, 아카이브실,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지하 1층 3곳을 비롯해 모두 5곳. 특히 1층 전시실은 2층에서 내려다보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천장의 전시공간이 있어 초대형 작품도 전시가 가능하며 2층 전시실은 전시 규모에 따라 2곳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준공한 부산현대미술관은 6월 개관에 맞춰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 중이다. 준공 당시 '미술관이 아니라 대형마트 같다'는 혹평을 받았던 건물 외관은 '수직 정원(Vertical Garden)'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프랑스의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의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직 정원은 식물이 수직 벽면에서 자라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정원'으로, 패트릭 블랑은 흙이 없는 수직 콘크리트 벽 위에 에어 플랜트(Air Plants)를 이용한 수직정원을 탄생시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외벽 전면과 측면 일부를 포함해 1,300㎡ 규모로 조성되며,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인 죽절초, 섬맹강나무, 삼백초, 섬개야광나무 등 175종 4만여 본이 식재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서울신청사 수직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식재되는 식물의 종수는 약 10배 이상이다. 개관에 맞추어 공개되는 이번 패트릭 블랑의 '수직정원'은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외관만큼이나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수직정원' 외에도 다양한 개관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미술관 1층 갤러리 카페는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들로 채워진다. 토비아스 레베르거는 지난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은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로, 독일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현대예술가 중 한 명이다. '토비아스 스페이스; Yourself is sometimes a place to call your own'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토비아스는 약 80평 규모의 박스(Box) 형태의 대형 설치작품을 제작해 토비아스의 작품등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카페로 운영한다. 미술관 지하 전시실에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주체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한 전시 '미래를 걷는 사람들'전이 열린다. 부산 작가 3명을 비롯해

일본, 타이완 작가 등 모두 10여 명이 참여해 영상과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밖에 2층 전시실에서는 스위스 설치예술가이자 소리예술가인 지문(Zimoun)의 '사운드미니멀리즘; Sound-minimalism'과 빛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채우는 '아티스트 프로젝트(Artist Project)' 등 다양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난다. 개관전은 8월 12일까지 계속되며 9월 9일부터는 2018 부산비엔날레가 11월 11일까지 6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진다.

개관전과 함께 문을 여는 어린이예술도서관은 을숙도의 갈대밭을 모티브로, 책과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특화된 문화예술공간이다. 특히 이 곳에는 약 4,000여 권의 장서가 9개의 주제별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되어 있어 책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책을 찾아보고,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미술관 전시 및 동시대 예술작품이 다루는 주제를 탐색해보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획서기', 어린이 대상 아트투어 프로그램 '아트트랙', 주말 가족 창작 워크숍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문의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 www.busan.go.kr



TRAVEL WITH YOU

테마가 있는 여행

천년의茶香이 가득한
야생차의 본고장

하동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매암다원

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입하(立夏)도 지나고
신록을 재촉하는 5월의 둘째 주 금요일인
지난 5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의 테마 여행지는
맑고 푸른 섬진강변을 따라 천년의茶香이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하동. 초여름의
싱그러움만큼이나 부푼 설렘을 안고
정기회원 가족들이 길을 나섰다.





이른 아침 부산을 출발해 서둘러 도착한 곳은 하동 다원 8경 중 하나인 매암차박물관. 하동은 삼국시대부터 차를 재배한 야생차의 본고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된 야생 차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화개면 쌍계사 주변은 지방기념물 61호인 '우리나라 차 시배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화개골은 그야말로 '차밭골'로, 하동군이 선정한 다원 8경 가운데 7경이 모두 이 골짜기에 모여 있다.

매암차박물관은 다원 8경 중 유일하게 약양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기슭에 자리한 다른 다원과 달리 2만3,000여㎡의 넓은 녹차밭 한 층에 자리잡은 평지다원으로 유명하다. 원래는 1926년 일본 큐슈대학에서 지리산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원으로 출발했으나 매암차박물관 관장인 강동오 씨의 부친인 故 강성호 홍이 1962년 이곳을 매입, 동주농원으로 이름 부치고 1993년 실로암재단원을 설립했다. 지난 2000년에는 부친의 호를 따 매암다원, 매암재단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물관을 개관했으며, 2008년 다원 8경으로 선정됐다. 특히 매암차박물관은 차의 제조 과정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박물관으로, 지난 100년의 약양지역 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도 한편에 마련되어 있다.

신록으로 짙게 물든 지리산을 배경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녹차밭에 들어서자 강동오 관장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매암차박물관에서는 은은한 한국식 전통 홍차 제조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보통 홍차라 하면 외국 차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홍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외국 홍차와 비교하면 발효 시간이 짧는데 은은하면서도 긴 향이 우리 홍차의 특징입니다.”

강동오 관장과 함께 홍차 만들기에 나선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두 조로 나뉘어 한 팀은 드넓은 차밭에서 차잎 따기, 한 팀은 제조 과정 중 하나인 차잎 유념과정 체험에 나섰다. 차잎을 강하게 비벼 상처를 주는 유념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 차잎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산화를 촉진시키는데, 홍차 제조 과정에서 있어 가장 특징적이다. 제조실 한 쪽의 산화과정에 있는 홍차의 향내도 맡아보며 체험을 마친 회원 가족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강동오 관장이 들려주는 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매암차박물관 인근 식당에서 맛깔스런 밑반찬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테마가 있는 여행



박경리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내부



하덕마을 골목길 갤러리

‘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평사리 최참판댁으로 자리를 옮겼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장장 26년에 걸쳐 5부 16권(최근 판 20권)으로 완간한 대하소설로, 대한제국 몰락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까지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과정을 대지주 최씨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그려냈다. 하동 평사리는 1897년 한가위에서 1908년 5월까지를 그린, 제1부의 공간적 배경으로, 최참판댁 인물들과 마을 소작인, 귀녀, 김평산 등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인물은 대개 평사리 출신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서희와 길상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되는 영남의 대지주 최참판댁은 섬진강이 감싸는 하동 평사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드라마의 촬영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림처럼 아름답고 눈에 익숙한 모습은 마치 작품 속 실제마을을 연상케 한다.

최참판댁을 둘러보기 앞서 최참판댁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박경리 문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은 전국적으로 3곳이 있는데, 우선 박경리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과 1980년부터 영면 전까지 텃밭을 일구며 대하소설 ‘토지’를 완성한 제2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 그리고 ‘토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곳 평사리이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박경리 문학관’에는 평소 선생이 사용하거나 아끼던 유물 41점과 각 출판사가 발행한 ‘토지’ 전집, 초상화, 영상물, ‘토지’ 속 인물지도 등을 전시관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전시관을 꼼꼼히 돌아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소설 속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며 최참판댁 곳곳을 둘러봤다.

부산으로 출발하기 앞서 최참판댁과 3분 거리에 있는 하덕마을 골목길 갤러리로 자리를 옮겼다. 최참판댁이 있는 평사리에서 먼사무소 사이, 입석리 하덕마을 골목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골목길 갤러리는 어느 벽화마을과는 달리 스토리가 있어 남다르다. 갤러리의 큰 줄거리는 차(茶). 만남, 차꽃, 찻잔, 달 아래서, 천년차나무처럼 차와 연관된 소재로 꾸며졌다. 지금은 세월의 손길에 바래서 녹슬고 낡아진 벽화와 조형물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그 속에서 살아온 하덕마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맑고 푸른 섬진강을 따라 향기로운 차향이 함께했던 하동 테마여행. 천년을 이어온 하동명차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7.13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찬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여행. 천년고찰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풍광이 아름다운 방초청 등을 둘러보며 김천의 여름을 느껴본다.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김천 도착
반곡포도마을 포도 따기 체험
- 12:00 중식
- 13:00 직지사 탐방
- 14:00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탐방
- 15:30 방초정 탐방
- 16:00 부산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6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권영구(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박효민(사하구 대티로) | 정은정(부산진구 엄광로) |
| 김창희(남구 석포로) | 설지운(영도구 남항서로) | 허 준(부산진구 가야대로) |
| 류성현(동래구 중앙대로) | 송은아(남구 분포로) | |
| 박정식(남구 황령대로) | 이은숙(사하구 괴정로) | |

기존 회원

- | | | |
|----------------|----------------|-----------------|
| 김수영(금정구 금샘로) | 이재희(해운대구 해운대로) | 천인주(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박정민(동래구 금강공원로) | 임순옥(해운대구 청사포로) | 최철수(사상구 엄궁북로) |
| 오일석(북구 화명신도시로) | 전상호(해운대구 대천로) | |
| 이관숙(영도구 광암길) | 조순남(남구 신선로) |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람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드림콘서트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대학교 교수 김일륜,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이희재, 김상혁, 우리창극연구회 회원 홍준표,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 '歌' 대표 민정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한영길,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단원 하지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국악으로 하나되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첫 무대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담긴 이야기를 정악적 느낌의 장중한 선율을 통해 멋스럽게 되살려낸 작곡가 유은선의 국악창작곡 '꿈을 꾸 후_몽유도원도로, 애절한 찰나의 꿈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몽유도원도의 이야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로 있는 이희재의 노래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남한의 대금과 북한의 옥류금이 만나 두 악기의 애절한 음색을 통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하지만 만날 수 없는 남북, 남녀의 마음을 노래한 박위철 곡 '필연(必然)'으로 대금주자 한영길, 옥류금주자 하지희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6·25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창극 '어메아리랑' 중 '하늘이여와 고려가요 '쌍화점'은 소리꾼 박성희와 정선희, 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하나되는 '드림콘서트'

국악창작곡에서부터 기악, 성악 등 다채로운 국악의 멋과 흥을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하나되는 드림콘서트'가 6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리톤 김창돈의 노래로 들려준다. 풍류 '가객' 대표로 있는 단소주자 김상혁의 연주로 들려주는 단소협주곡 '추산'은 산조연주에 적합하지 않았던 단소를 처음으로 산조 연주한 추산 전용선 선생의 단소산조로, 맑은 음색과 농음(弄音, 즉흥적으로 내는 꾸밈음)으로 단소산조의 진수를 들려준다. 박범훈이 작곡한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가야송'은 아시아 쥬교류회 회장으로 있는 김일륜의 연주로 들려준다. 김일륜은 가야금산조 6바탕(최옥삼류, 정남희계

황병기류, 성금연류, 김병호류, 김죽파류, 신관용류)을 모두 완주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무속음악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국악레퀴엠으로, 라틴어로 된 가톨릭미사의 합창가사와 진도씻김굿 '길뉘음' 중 '애소리'와 '나무아미타불'을 차용, 종교를 뛰어넘어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과 제11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홍준표, 제37회 MBC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가야금병창장원, 제18회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민정민이 협연한다.

일시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Richard Strauss



지휘 최수열



양성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 '소망'

—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소망'이 6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다섯 번째 무대인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작곡가 율이상을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린 작품 ‘예약’을 비롯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망스’와 환상적 변주곡 ‘돈키호테’를 들려준다. 첫 무대인 율이상 곡 ‘예약’은 궁중음악인 종교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초연 당시 ‘동양의 사상과 음악 기법을 서양음악 어법과 결합해 완벽하게 표현한 최초의 작곡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율이상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망스로, 첼리스트 양성원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 곡은 지난 1883년, 19세의 슈트라우스가 뮌헨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쓴 작품으로, 그가 작곡한 교향곡 바단조 작품 12번의 습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에 출판되면서 슈트라우스 살아 생전에는 연주되지 못했던 작품이나 서정적인 첼로의 멜로디에 수수한 오케스트라 하모니와 음색채의 활용으로 슈트라우스 특유의 작풍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초청이 끊이지 않는 첼리스트 양성원은 그동안 뉴욕 링컨센터, 카네기 홀, 워싱턴DC의 테라스 극장, 파리의 살플레엘, 살 가보우, 일본의 오페라 시티홀 등 세계적인 명성의 콘서트홀을 비롯해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을 수상한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의 초빙 교수로 있으며,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동명의 소설을 교향시로 작곡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환상적 변주곡 ‘돈키호테’가 연주된다. 슈트라우스 스스로가 스코어에 ‘환상적 변주곡’이라 표기한 것처럼 자유로운 구성과 변주법에 의해 돈키호테의 기행을 차례대로 묘사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이성호가 협연한다.

일시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6월 12일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21일 동래문화회관, 26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최근 구(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양한 춤 레퍼토리를 통해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첫 무대로 선보이는 '풍속도'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를 배경으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풍류의 이미지로 담아낸 작품이며, '선녀와 나무꾼'은 동화 속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를 경기민요 '창부타령'으로 풀어낸다.

이어서는 가수 최백호의 히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학과 재치 넘치는 무대로 풀어낸 '낭만에 대하여'와 전 세계에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이 흐르는 가운데 바다 위 선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 '타이타닉', 1990년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제곡 'Unchained Melody'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반전 코믹댄스 '사랑과 영혼'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배경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간다.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부산시립무용단이 區문화회관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가
6월 한 달간 세 차례 펼쳐진다.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독주곡 '밤의 소리'를 배경으로 잔잔한 호숫가에서 유영하는 백조들을 형상화한 '춘설'에 이어서는 '늪은 여자'로 한국 민속 연희 중 탈춤의 해체를 시도한다.

'늪은 여자'는 전통연희의 놀이적 성격을 현대적 언어로 치환한 무대로 다양한 춤과 소리,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지는 무대이다. 봉산탈춤 중 '미알과장'을 소재로 할멈과 영감, 첩의 애정과 갈등을 그려내는 가운데 진중한 위트로 풀어낸 늪지 않은 여자의 표정이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달된다.

마지막 무대는 '몸의 수다'로 경기민요 '꽃타령', '뱃노래'를 테마로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한편, 부산시립무용단은 6월 28일 사상 다누림센터 다누림홀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사상문화원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화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 6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프리뷰



지휘 김덕기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손지혜

대한민국 오페라를 이끈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의 거장 바그너에서부터 마스네, 로시니, 푸치니, 모차르트, 도니제티, 구노, 베르디 등 유명 오페라 속 주옥같은 아리아를 통해 최정상의 두 성악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오페라의 매력을 전해준다. 신선한 감동을 주는 탁월한 해석력으로 청중뿐 아니라 성악가, 연출가, 제작자 등 오페라 제작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지휘자 김덕기는 오페라 ‘베르테르’, ‘페도라’, ‘두 사람의 포스카리’ 등을 한국 초연했으며 예술의전당 오페라 페스티벌, 대한민국 오페라 50주년 및 60주년, 70주년 기념공연, 서울시오페라단 ‘베르디 빅 5’ 시리즈 등 국내 굵직한 오페라 무대를 도맡아왔다.

혼이 담긴 파괴력 있는 목소리를 지닌 바리톤 사무엘 윤은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으로 발탁되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듬해인 2013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에서는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로엔그린’에 동시 출연해 영웅 바리톤이라는 최고의 찬사와 함께 2014년 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소프라노 손지혜가 함께하는 듀오콘서트가
6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일 쾰른시에서 수여하는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탈레만, 피에르 블레즈, 세미온 비쉬코프, 마르쿠스 스텐즈 등 거장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며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페, 쾰른 오페, 바이로이트 등 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서온 사무엘 윤은 지난 2016년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인 것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소프라노의 오페라’로 불리는 오페라 ‘마농’의 타이틀롤을 맡아 큰 주목을 받은 소프라노 손지혜는 그동안 바르셀로나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빌바오 국제성악콩쿠르, 뮌헨 ARD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지난 2004년 오페라 ‘라보엠’으로 이탈리아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프랑스 파리 리모주, 룩셈부르크오페라, 스웨덴 말뫼오페라, 스위스 취리히톤할레, 이탈리아 파르마극장, 볼로냐극장, 싱가포르 에스플라나데홀, 이탈리아 스폴레토 페스티벌,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활동해왔다.

사무엘 윤&손지혜

일시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지난 5월 11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이번 '동아시아 평화콘서트'에서는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과 하얼빈,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무한한 인류애와 환희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우호의 장을 펼친다. 부산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 김나영,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 출신의 테너 조중혁과 베이스 허종훈이, 하얼빈과 가나자와에서는 각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과 소프라노(가나자와), 메조소프라노(하얼빈)가 출연, 국경을 초월한 웅장하면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을 대표해 '합창' 무대의 솔로리스트로 무대에 서는 테너 조중혁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체코 드보르작 국제콩쿠르에서 전체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즌 2006/2007에 칼스루에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돈조반니'로 데뷔한 후 독일과 이탈리아,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조중혁은 지난해 9월, 데뷔작이었던 '돈조반니'로 고향인 부산에서 국내 첫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베이스 허종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과정 재학 중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
한·중·일 문화교류를 위해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행사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 평화콘서트'가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스페인으로 유학,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플라시도 도밍고 센터)과 아일랜드 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10 스페인 빌바오 국제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세계적인 거장 주빈 메타, 로린 마젤, 알베르토 제타가 있는 스페인 발렌시아 극장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연주에 앞서서는 첫 무대로 '차분한 내적 자신감, 뛰어난 드라마틱 센스를 지닌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음악가로 호평받은 피아니스트 김나영이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3번을 들려준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중 유일한 단조 협주곡인 '피아노협주곡 제3번'은 선배 작곡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베토벤의 개성이 드러난 작품으로, 낭만적인 선율과 정열적인 곡상이 잘 어우러진 명작이다. 최근 뉴욕 멀킨홀,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의 데뷔 독주회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주목받았던 김나영은 음연 피아노 아카데미, 라이프찌히 유로 뮤직 페스티벌 초빙 교수, 라 피아니스타 타이완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다.

일시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프리뷰

Ein Deutsches Requiem



특히 6월은 우리에게 민족상잔의 아픔이 담긴 달로, 현재도 남북 간 이 대치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달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 '살아 남은 자'를 위한 레퀴엠으로 알려진 브람스의 '독일레퀴엠 (Ein Deutsches Requiem Op.45)'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흔히 '진혼곡'

으로 불리는 '레퀴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쓰였던 곡이었으나 브람스는 자신의 스승인 슈만의 사후 홀로 남겨진 클라라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후에 남겨진 자신을 위해 레퀴엠을 작곡했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김동섭이 특별출연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한양대학교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Accademia A.I.D.M, Accademia di Roma를 졸업한 소프라노 구민영은 국제콩쿠르 Premio Enrico segattini에서 특별상을, Musica Sacra 종교성악

부산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 '독일레퀴엠'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브람스 '독일레퀴엠'으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린다.

콩쿠르에서 로마지역청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바질리카산 실베스트로 솔리스트, 로마니칸 토레스 합창단 솔리스트,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로 있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구민영은 예술의전당 주최 기획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을 시작으로 이후 국내 주요 오페라단들과 함께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구민영은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정부 장학생(DAAD)으로 선출되어 뮌헨국립음대를 졸업한 바리톤 김동섭은 MBC 대학가곡제 대상, 독일가곡콩쿠르 1위, 중앙콩쿠르 1위에 입상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3위, 뮌헨 ARD 콩쿠르 동양인 최초 1위 입상 등 해외콩쿠르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 빈슈타츠 오페라에서 수여하는 '에버하르트 메달'을 수상한 김동섭은 2006년 인스부르크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서 30편이 넘는 오페라 무대에 서는 등 그동안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동섭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있다.

일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협연자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기량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다양한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협주곡을 다양한 악기로 감상할 수 있다.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6명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4학년 하예은, 1학년 한윤승이 출연, 평소 담아온 뛰어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인제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엄경민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K.314' 중 1악장을 들려준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그가 이미 작곡했던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를 플루트 협주곡으로 개작한 곡으로, 요즘은 원곡인 오보에 협주곡보다도 훨씬 널리 연주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4학년 하예은이 들려주는 W.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 2악장 연주에 이어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경성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강윤선이 차이콥스키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8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2018 솔로리스트들의 축제'가 6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을 들려준다. 트럼펫의 기교를 열정적으로 표현한 아르투니안의 '트럼펫 협주곡 내림가장조'는 부산대학교 1학년 한윤승, 생전 베토벤을 능가하는 위대한 작곡가로 칭송받았던 L. 슈포어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4번' 1악장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경성대학교 4학년 정찬우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탄탄한 구조와 이국 풍의 색채가 풍부한 선율로 근대 첼로 협주곡 가운데 백미로 평가되는 탈로 '첼로 협주

곡 라단조 작품 37' 1악장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부산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현아가,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금관악기인 튜바의 웅장하면서도 묵직한 연주가 돋보이는 본 윌리엄스의 '튜바 협주곡' 1악장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훈이 들려주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이자 경성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이정민은 친첵린(Chin Cheng Lin)의 '마림바 협주곡 제1번' 3악장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시 6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부산 춤으로 물들다!

2018년 제14회 부산국제무용제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는 2018년 제14회 부산국제무용제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BIDF)가 오는 6월 1일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2018년 올해 ‘춤으로 여는 부산, 세계를 잇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국내 무용 단체를 비롯해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한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핀란드, 헝가리 등 15개국 45개 무용단이 참가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비롯해 벨리댄스, 민속무용 등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경연부문인 ‘AK21(Arts Korea) 국제안무가육성공연’을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해온 부산국제무용제는 올해부터는 ‘BIDF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 젊고 유망한 무용수들이 국제적인 경력을 쌓아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IDF 국제무용콩쿠르’는 6월 5일 예선을 시작으로 8일 파이널무대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수상자들은 6월 9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식 무대에서 갈라공연을 갖는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에 참가하는 해외 초청 단체로는 중국의 절강 및 양쯔강 델타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을 보존, 전수해온 중국 양쯔강 델타유역 무형문화유산 연구소(Institute of Yangtze Delt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 China)를 비롯해 스페인 국립무용단 수석 발레리나인 김세연 씨가 스페인 국립무용단 단원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발레리나, 발레리노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 그룹 서울메이

Korea



Switzerland

◆
6월 1일(금)-9일(토)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등 무료(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전석 1만원, 폐막식 및 시상식, 갈라공연 전석 1만5천원)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 www.bidf.kr)





1

- 1 한국 채향순중양무용단
- 2 스위스_Compagnie 7273
- 3 중국 양쯔강 델타유역 무형문화유산 연구소
- 4 이탈리아 Con.Cor.D.A./
Movimento in actor Teatrodanza



4

Italy

트(SeoulMates), 그리고 Gil Kerer Dance Company(이스라엘), 이리나 아쿠렌코(미국), Compagnie 7273(스위스), Csillagszemű Dance Ensemble(헝가리), Maya Dance Theatre(싱가포르), Con.Cor.D.A./Movimento in actor Teatrodanza(이탈리아), Game(오스트리아/벨기에), TanTan(일본), PORI DANCE COMPANY/BODY IN MOTION RY(핀란드), Y.O Saigon Dance Ensemble(베트남)이 있으며, 국내단체로서는 LDP무용단, PROJECT Cloud Nine, 장유경무용단, 김선희 발레단, 채향순중양무용단, 춤벗이 관객과 만난다. 6월 4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에서는 손영일 무용단, Look Dance Company, 현대무용단 자유, 틈마루 무용단 등 4개팀이 참여하며 정신혜무용단이 축하 공연을 갖는다.

China



이밖에 부산국제무용제에 참가하는 해외 무용 단체들이 자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무용을 알리는 'BIDF 스쿨투어', 공식 초청 공연 후 무대에서 이뤄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즉흥댄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다.

주요 일정

- ◇ BIDF 개막식전공연 6월 1일(금) 오후 6: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 개막식 6월 1일(금) 오후 7:0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 시민참여공연 6월 2일(토) 오후 6: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 공식초청공연 6월 2일(토)-3일(일) 오후 7:3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 열린춤무대 6월 3일(일) 오후 7:00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6월 4일(월)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BIDF 국제무용콩쿠르 6월 5일(화)-8일(금)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폐막식 및 시상식, 갈라공연 6월 9일(토)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18 제27회 부산무용제



부산 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8년 무대가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 올해는 현대무용단 자유와 부산발레연구회, 판댄스시어터 등 3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지난 1995년 부산대학교 박은화 교수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현대무용단 자유는 현재 무용단 대표로 있는 안선희 안무의 창작무용 '원(圓)'을 선보인다. 삶을 경험하는 몸에 초점을 두어 기본적인 몸의 능력을 탐구하는 '원(圓)'은 상황이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다른 상황을 만드는 도구이자 주체로서의 몸을 만나는 과정을 원형의 형태로 표현한다. 안무자 안선희는 제24회 부산무용제 여자연기상/안무상, 2016한국춤비평가상 춤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안무작으로 'The hall', '12FT', '기울어짐의 대하여' 등이 있다.

지난 1992년 부산대학교 주수광 교수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클래식 발레의 레퍼토리와 창작발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발레연구회는 김한나 안무의 창작발레 'Along with you(함께 있으리라)'를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젊은 시절을 그린 자전적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The Theory of Everything)'을 오마주한 창작발레 'Along with you(함께 있으리라)'는 발레와 영화의 콜라베이션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안무자 김한나는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충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창작발레 'AION', 'IF'로 부산무용제에 참가한 바 있다.

2012년 2월 창단 후 자유로운 몸짓과 한계 짓지 않는 움직임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온 판댄스시어터는 김수현 안무의 'Red Door'를 선보인다. 'Red Door'는 최근 들어 웰빙(Well-being)에 이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웰다잉(Well Dying)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죽음의 문인 'Red Door' 앞에 선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춤 속에 담아낸다. 현재 판댄스시어터, 김수현의 춤 대표로 있는 김수현은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부산무용제에서 'Left behind'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축하 공연으로는 '북청사자놀이'의 움직임과 장면을 차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Dance Project EGERO '사자.who(안무/이용진)'가 무대에 오르며, 이밖에 부대행사로 부산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춤마당'이 무대공연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참가팀

현대무용단 자유 '원(圓)' (안무/안선희)

부산발레연구회 'Along with you(함께 있으리라)' (안무/김한나)

판댄스시어터 'Red Door' (안무/김수현)

◇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 29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부산무용협회 632-5116



● 상리에비면인도족 가면



● 밤바라족의 치와라가면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기념 부산박물관 2018년 특별기획전 ‘Africa’

아프리카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예술작품을 통해 아프리카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이 열린다. 부산박물관(관장 이원복)에서는 박물관 개관 40주년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부산개최를 기념하여 2018년 특별기획전 ‘Africa’를 8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며 총 5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존재하는 부족의 수만 수천이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언어만 해도 2,0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특징이 존재하는 광활한 대륙이다.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AfDB)를 기념해,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번 전시는 크게 4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계 속의 아프리카’에서는 15~19세기 세계지도 속에 담긴 아프리카를 소개한다. 특히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들과 달리 아프리카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 풍산김씨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 중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의 그림을 통해서는 과거 전혀 교류가 없었을 것이라 여겼던 아프리카 사람과의 조우가 이미 조선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도 아프리카인과의 만남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고향,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에서는 초기 인류 화석인 투마이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던 호모에렉투스의 인류 화석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변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한양대학교 발굴팀이 조사한 탄자니아 이시밀라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과 한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유적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서로 간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18~19세기 아프리카의 특징적인 유물을 소개하는 “아프리카의 일상”에서는 가면, 조각상, 장신구, 무기, 생활도구, 악기 등 우리문화와 다르면서도 닮은 듯한 아프리카의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녕,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전시로 꾸며진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도왔던 아프리카의 우방국들을 살펴보고, 아프리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진작가 김종만의 아프리카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다.

● 요루바족의 오그보니 함



◇ 5월 18일(금)-8월 19일(일)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 무료
 ◇ 부산박물관 610-7111, museum.busan.g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II



◇ ... 음악평론가 김동벽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일부였던 국악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취향이 변한 탓도 있지만 국악인들이 변화에 맞춰나가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 속에 국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는 욕구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식의 국악 곡들이 나오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시도 중 하나인 국악관현악은 서양의 관현악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으며 1965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생긴 이후 1980~90년대 전 국적인 창설 붐으로 현재 30여개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발전 중이며 국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의 ‘화려한 만남 II’이라는 주제의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2016년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가진 ‘화려한 만남’에 이은 두 번째 공연으로 창단 30주년을 함께 맞았던 지난 2015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이후 4년만의 만남이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은 총 6곡이 연주되었으며 1부에서는 대구시립국악단이,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3곡씩을 맡아 연주했다. 어버이날에 진행된 공연이다 보니 만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산에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객석을 메웠다.

이번 공연에서 두 단체는 각각의 곡들이 비슷한 형식인 듯, 하지만 서로 상반된 느낌의 곡들을 들려주었다. 대구시립국악단에서는

‘고구려의 혼 Rcomposed’를 통해 고구려의 기상을 강렬하게 표현했다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대지II’를 통해 강렬하진 않지만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대구시립국악단에서 ‘김동진류 대금산조 협주곡’을 통해 대금산조의 강렬한 청의 소리와 대나무의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김윤덕류 가야금 협주곡’을 통해 단백하고 단단하지만 때론 화려한 음악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곡에서도 대구시립국악단은 ‘박연폭포, 그라나다, 우정의 노래’로 테너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경기도 당곳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을 통해 화려한 타악리듬과 연주자의 열정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구시립국악단은 강렬하면서도 곳곳에 서양악기와 노래를 통해 국악기 소리의 빈 곳을 메워 평소 때 듣던 국악관현악과는 다른 대중적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강렬하진 않지만 울림이 있는 전통적인 국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이 두 단체의 모습이 국악계가 말하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만 하면 그 음악은 멈춰버릴 것이고 발전에만 신경을 쓰면 그 음악은 뿌리가 사라진 유행가가 되어 버릴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건 지금은 과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 속에 우리는 어느덧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을 지도 모른다. 좋은 연주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이 두 단체에 박수를 보낸다.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피란수도 부산_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



◆ 평론가, 예술부산 편집장 **이민정**

지난 세기의 근대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은 매우 격정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후에는 갈등과 혼돈의 시대가 이어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분열이 발생하고 나라는 암흑과 폐허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한국 영토와 한국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경험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칠흑 같은 혼돈의 시기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희망을 바라고 부활을 꿈꾸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는 해안 경계선을 따라 안전지대에 상당히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러한 피난민 사이에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예술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황량하고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에서 잠시 한숨을 돌려서 언젠가 다시 찾게 될 자유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의 테마는 ‘피란수도 부산_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으로, 2018년 7월 2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예술 표현방식이 1950년 암흑과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 1953년 미래를 위한 생존과 한국의 새로운 예술운동으로 꽃피워나가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피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오랜 터전을 쫓기듯 떠나는 민초들의 모습과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양달석의 ‘판자촌’, 남관의 ‘집으로 가는 길’, 박영선의 ‘폐허의 서울’은 전쟁이 내재하고 있는 파멸과 상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들의 화풍은 얼룩덜룩하게 번져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잔해의 모습을 희미하고 흐릿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찾지 못한 혼란스러움을 나타내

며, 1950년 미술작품의 주된 테마인 혼돈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예술가들은 무너져버린 절망과 폐허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작품은 대부분 마치 꿈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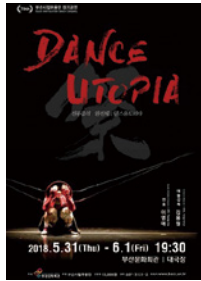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전시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그것이 어떻게 사회와 인류를 참혹할 정도로 파멸시키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전쟁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다. 한국전쟁 중 부산의 다방 카페에서 예술이 부활한 것은 한국 전역에서 예술이 부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보다 현대화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품 속에서 카페는, 실내를 가득 메운 음악, 벽에 걸린 레코드, 안락함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고풍스러운 가구 등 그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카페들은 전쟁을 잠시 잊게 하는 도피처이면서 복원해야 할 만남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중에 공개되는 그림들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부활을 그린 작품들이다. 예술의 부활은, 바로 한국인들의 부활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암울한 절망에 주목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된 생각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잡지와 팸플릿,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명암 및 자유로운 주제를 통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고통 앞에 주저앉지 않는 의지는 삶과 예술의 방향을 칠흑 같은 혼돈에서 빠져 나오게 만들고 선명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Dance Utopia

일 시 5월 31일-6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그동안 한국춤의 전통을 계승하며 그 속에서 현대성, 다양성, 대중성 등 현대예술이 요구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제78회 정기공연 ‘Dance Utopia’.

예술감독 김용철의 안무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살풀이춤, 바라춤, 지전춤, 무당춤 등 한국춤의 소중한 자산인 4가지 전통춤을 전통춤이 가진 송고한 미덕 중 하나인 ‘제(祭)’를 통해 풀어본다. 제의 형식에 기반한 우리춤 원형을 탐색하고 파생된 한국창작춤 이미지는 그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하나의 춤이 또 다른 춤을 마주하게 하면서 전통춤의 완전체인 ‘댄스 유토피아’를 실현한다.

- 안무/김용철(예술감독) • 연출/이영애

이성미, 최선경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이성미 010-5634-1086



고신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성미, 최선경의 피아노 듀오 무대.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와 독일 Johannes Brahms Konservatorium Diplom을 졸업한 이성미는 현재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부산색소폰오케스트라, 페스티보 클라리넷 콰이어 반주자로 활동해오고 있다.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최선경은 미국과 부산에서의 독주회를 비롯 뉴욕주립대학교 Fredonia College Symphony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즉흥곡 작품 90, 소나타 제20번과 제21번을 들려준다.

노엘합창단 제59회 정기연주회
존 루터의 Feel the Spirit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노엘합창단 010-5796-1115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노엘합창단의 59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61년도 창단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노엘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미국 오하이오 영스타주립대학의 합창지휘교수로 있는 이해중 교수를 초청, 1부에서는 영국의 현존 작곡가 존 루터의 합창음악과 미국민요모음, 그리고 귀에 익은 올드 팝 모음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존 루터가 편곡한 흑인노예들의 애환이 담긴 흑인영가를 알토 김봉애의 솔로무대와 함께 노엘페스티벌양상블의 연주로 들려준다.

- 객원지휘/이해중 • 피아노/윤민하
• 협연/노엘페스티벌양상블(악장/조현미)

제5회 벨라보체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벨라보체 합창단 010-5764-2866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혼성합창단인 벨라보체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뜻하는 벨라보체합창단은 2014년 1월 창단 이후 매주 한차례 모여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누려오고 있다.

지휘자 조현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조현수 • 반주/이현주
• 게스트/곽은진(판소리), 이수진(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2018 예술제
제31회 음악정기연주회

일 시 6월 5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부산예술고등학교 개교 32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2018 부산예술제 ‘제31회 음악정기연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무대로, 관현악 연주에서부터 합창, 피아노독주, 피아노듀오, 바이올린독주, 성악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 브람스/피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 Book 1 김다현/Nuit noire
리스트/돈 쇼반니의 회상 S.418 브루흐/스코틀랜드 환상곡 내림마장조 작품 46 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성배

2018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닥터스 심포닉 밴드 010-9458-9258



지난 1999년 부산지역 의사,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2018 정기연주회.

지휘자 정홍기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구민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스티븐 라이네케가 애리조나 세도나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관악합주곡 ‘세도나(Sedona)’를 비롯해 스페인에서 투우사가 입장할 때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인 ‘에스파냐 카니’, 비틀즈의 히트곡을 모은 ‘The Symphonic Beatles’, 영화 ‘아바타’ OST, We Are The World 등 클래식, 영화음악, 팝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관악 심포닉 밴드라는 독특한 편성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하나되는 ‘드림콘서트’

일 시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국악창작곡에서부터 기악, 성악 등 다채로운 국악의 멋과 흥을 들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7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하나되는 드림콘서트’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앙대학교 교수 김일륜,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이희재, 김상혁, 우리창곡연구회 회원 홍준표, 노래하는 가아금 놀다가 ‘歌’ 대표 민정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한영길,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단원 하지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창돈,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이 출연, 국악으로 하나되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제3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 시 6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동아 피아노 앙상블 010-2333-2544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학생들과 최치는 전임교수, 박정희, 서혜리, 김정은 강의전담 교수가 펼치는 화려하고도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의 밤. 올해로 3회를 맞는 동아 피아노 앙상블의 밤은 동아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피아노 전공자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마련하는 사제음악회로, 격년에 걸쳐 열리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모차르트부터 프록피에프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로 초여름 밤을 장식한다.

- 연주/김지나, 김수진, 서만철, 황지민, 박성경, 이아정, 김유진, 상선영, 허윤영, 박현지, 이다은, 윤송이, 정유림, 김예지, 최지은, 박경희, 서혜리, 김정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 ‘소망’

일 시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회 ‘소망’.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다섯 번째 무대로, 작곡가 윤이상을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린 작품 ‘예악’을 비롯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망스’와 환상적 변주곡 ‘돈키호테’를 들려준다.

- 지휘/최수열 ● 협연/첼리스트 양성원

윤민선 & 전숙영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6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전숙영 010-5019-7274



윤민선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신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전숙영은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와 독일 Nuernberg-Augsburg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Augsburg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신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있다.

- 프로그램**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작품 72 제1, 2번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작품 94
 피아졸라/오블리비온 등

제33회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8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 010-5468-4658



지난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특히 베트남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면서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 최고의 지휘자 전 브영택(Tran vuong Thach)이 객원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다오넷 광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하순봉의 창작서곡 ‘Nomad for orchestra’를 비롯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622’,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다

일 시 6월 10일 일요일 오후 5: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010-5246-5651



피아니스트 성아람, 장서희,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첼리스트 이기훈으로 구성된 아컴퍼니 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러시아어로 앙상블을 뜻하는 ‘Ансамбль’와 ‘동행하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다’의 뜻을 지닌 ‘Accompany’를 합쳐 만든 아컴퍼니(A.Company) 챔버앙상블은 지난해 4월 창단연주회 이후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실내악 합주단의 악기 편성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 이번 무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모슈코프스키, 피아졸라, 차이콥스키, 김수진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일 시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소프라노 손지혜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대한민국 오페라를 이끈 지휘자 김덕기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의 거장 바그너에서부터 마스네, 로시니, 푸치니, 모차르트, 도니체티, 구노, 베르디 등 유명 오페라 속 주옥같은 아리아를 통해 오페라의 매력을 전해준다. 혼이 담긴 파격력 있는 목소리를 지닌 바리톤 사무엘 윤은 영웅 바리톤이라는 최고의 찬사와 함께 2014년 독일 쾰른시에서 수여하는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을 수상했다.

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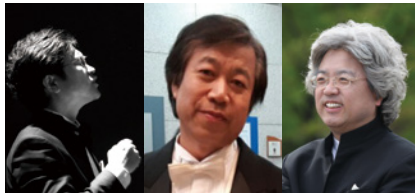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김은진 010-9361-0091



단아함 속의 열정을 가진 비올리스트 김은진 독주회.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주자이자 동의대학교,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부산 비르투오조 켈렛 멤버, 경남 솔로이스츠 리더, 서울 ST 406 멤버, 부산 클래식 뮤직 소사이어티 리더, 부산 비르투오조 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은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귀국,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비올라의 깊이 있는 음색으로 관객과 호흡해오고 있다.
● 피아노/에브게니 이조토프

합창연주회 '사계절의 노래'

일 시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합창교류협의회 010-8520-4649



합창의 아름다움과 맛을 추구하며 부산지역 합창음악 진흥을 위해 발족된 부산합창교류협의회(대표 강성철)가 마련한 첫번째 연합합창연주회. 부산여성합창단(지휘/김성복), 예그린합창단(지휘/손옥), 단비를 남성앙상블(지휘/강성철)등 3개 합창단이 출연, 재미 작곡가 이호준의 혼성합창곡집 '사계절의 노래'를 들려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음악회
콘서트&오페라 '백년의 약속'

일 시 6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www.gtbando.com)에서 관람권 신청)
문의 그룹씨어터 반도 02-6956-022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지닌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마련한 무대. 독립운동 당시의 작품을 클래식,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독립운동가 중 좌우진영을 대표하는 작곡가 한유한의 오페라 '아리랑'과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 각색한 오페라 '바람과 구름이 되어'로 통합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임웅곤 ● 지휘/홍성택
● 연주/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시립합창단(지휘/전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부산시의사회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사계절의 하모니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의사회합창단 010-9356-1834



부산시의사회 소속 남녀의사로 구성된 부산시의사회합창단 메디코러스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창단된 부산시의사회합창단은 그동안 부산시의사회의 각종 행사를 비롯해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지휘자 양재원이 지휘하고 현악4중주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계절을 노래한 한국가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세계민요, 가요 등을 들려준다.
● 단장/안병문 ● 지휘/양재원 ● 피아노/김현경
● 특별출연/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희정)
현악4중주(손은혜, 정아람, 김가민, 변은석)
임성원(타악기)

부산시어머니 합창페스티벌

일 시 6월 19일 화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 단장 김정옥 010-3833-0621

구 여성합창단의 기량증진과 부산 합창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해 부산지역 14개구 여성합창단이 참가하는 부산시어머니 합창페스티벌.

출연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지휘/고영호), 중구 참솔여성합창단(지휘/정찬미),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지휘/김철수), 기장군 해송여성합창단(지휘/박용선), 서구 여성합창단(지휘/채범석), 금정구 여성합창단(지휘/조윤환), 영도구립합창단(지휘/전옥용), 사상구 여성합창단(지휘/양재원),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지휘/이성훈), 북구 여성합창단(지휘/이기환), 연제구 여성합창단(지휘/민수연), 사하구 장미여성합창단(지휘/엄현섭), 해운대구립여성합창단(지휘/김성배), 동구 여성합창단(지휘/심정보)
● 특별출연/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지휘/윤정윤), 영곡초등학교 오케스트라(지휘/류지현)

소프라노 전월선 초청콘서트

일 시 6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배타적인 일본 사회에서 일본의 오페라계를 석권하며 그 이름을 당당히 알려낸 재일교포 성악가 전월선 초청 콘서트.

한국과 일본, 북한을 오가며 활동해온 전월선은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고이즈미 총리, 한국 김대중 대통령 등 3개국 수반 앞에서 연주한 특별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전월선은 그동안 일본 도쿄오페라단에서 오페라 '나비부인', '살로메', '춘희'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오페라단 '카르멘', 월드컵 한·일 공동주최 기념 오페라 '춘향전'의 주역으로 무대에 선 바 있다.

- 특별출연/테너 김충희, 첼로 정아라
- 피아노/박미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일 시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5월 11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이번 '동아시아 평화콘서트'에서는 부산과 하얼빈,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무한한 인류애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우호의 장을 펼친다. 부산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부산 출신의 테너 조중혁과 베이스 허종훈, 피아니스 김나영이, 하얼빈과 가나자와에서는 각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과 소프라노(하얼빈), 메조소프라노(가나자와)가 출연, 국경을 초월한 웅장하면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5월 11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이번 '동아시아 평화콘서트'에서는 부산과 하얼빈,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무한한 인류애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으로 우호의 장을 펼친다. 부산에서는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부산 출신의 테너 조중혁과 베이스 허종훈, 피아니스 김나영이, 하얼빈과 가나자와에서는 각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과 소프라노(하얼빈), 메조소프라노(가나자와)가 출연, 국경을 초월한 웅장하면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15회 부산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하모니합창단 010-2593-1651, 010-5556-9276, www.bsharmony.com



깊은 예술성과 신선하고 흥겨운 레퍼토리, 느낌과 여운이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혼성 민간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따라 '평화(Dona Nobis Pacem)'라는 주제로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인간의 감성을 깊이 있게 전하는 무반주 합창을 비롯해 세계적인 합창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최신 합창곡들과 하모니합창단을 위해 자신의 곡을 헌정한 남미의 유명 작곡가 Emilio Sole-Sempere의 하모니헌정곡 등 스토리가 있는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 특별출연/카운터 테너 김대경

호국보훈의 달 기념 2018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

일 시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해군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679-6621~4



충무공 탄신 473주년을 기념해 해군작전사령부가 마련하는 호국음악회.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미 양국의 해군군악대 100여 명을 비롯해 해군 비보이팀, 가수 노을 등이 출연,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해군군악대는 1946년 창설 이래 한국 관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군악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TIM 스트링 콰르텟 창단 기념연주회

일 시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콰르텟 T.I.M 010-5318-0295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은정, 최보린, 비올리스트 정희경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IPB 챔버로 있는 첼리스트 변은석 등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콰르텟 T.I.M 창단연주회. 지난해 여름 창단된 콰르텟 T.I.M은 연주를 통해 관객이 그 음악을 듣고(Take in music) 감동을 받으며(Touch in music) 동시에 변화(Turning in music)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악사중주 제12번 '아메리칸'
 보로딘/현악사중주 제2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VIP회원 30%, 스페셜·예술단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난 1990년 결성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역사상 첫 민간오케스트라로, 가장 짧은 기간내 가장 성공한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프로그램**
 A.글라주노프/모음곡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
 J.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I.스트라빈스키/볼새
 ● 협연/에스터 유(바이올린)

부산문화회관

손은혜 & 김은정 듀오 리사이틀
BON VOYAGE EN FRANCE

일 시 6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김은정 010-2802-167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앙상블 Art-O, (사)The Soloists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와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정의 듀오 무대.

프로그램

- 라벨/소나티네
- 포레/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자장가 작품 16
- 포레/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작품 28
- 쇼송/피아노와 바이올린, 현악4중주를 위한 협주곡
- 라장조 작품 21
- 바이올린/탁서연, 정아람
- 비올라/김가민 ● 첼로/김기량

제1204회 MBC목요음악회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1902년 창단된 11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콘서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을 넘나들며 명성을 쌓아온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는 그동안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거쳐 갔으며 유럽의 수많은 콘서트홀과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현국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황성훈, 소프라노 박연경이 출연,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제27회 부산무용제

일 시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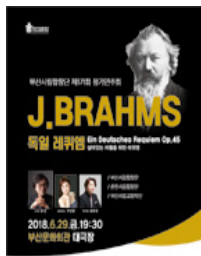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에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8년 무대.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 올해는 현대무용단 자유와 부산발레연구회, 판댄스시어터 등 3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참가팀

- 현대무용단 자유 '원(圓)'(안무/안선희)
- 부산발레연구 'Along with you(함께 있으리라)'(안무/김하나)
- 판댄스시어터 "Red Door"(안무/김수현)

부산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 '독일레퀴엠'

일 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독일레퀴엠'. '살아 남은자'를 위한 레퀴엠으로 알려진 브람스의 '독일레퀴엠'은 자신의 스승인 슈만의 사후 홀로 남겨진 클라라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후에 남겨진 자신을 위해 작곡한 레퀴엠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김동섭이 특별출연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일 시 6월 29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열정적이고 강렬하게 때로는 경쾌하면서도 산뜻한 표현으로 드라마틱한 전율을 전하는 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맨하탄 음악대학과 메릴랜드 음악대학에서 각각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은희는 그동안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 주역 및 수심 회의 독창회, 듀오 리사이틀 및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은희는 이번 무대에서 로시니, 레이날도 한, 쇤베르크, 호아킨 투리나의 가곡들과 이원주, 김주원의 한국가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영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8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6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차세대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2018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수석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8명의 협연자가 평소 닦아온 뛰어난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다양한 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협주곡을 다양한 악기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 협연/엄경민(플루트), 하예은(비올라), 강운선(바이올린), 한윤승(트럼펫), 정찬우(클라리넷), 이현아(첼로), 김정훈(튜바), 이경민(타악)

**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연극제**

일 시 5월 23일(수)-6월 8일(금) 오후 4:00, 7: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화명고등학교, 남산고등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만덕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 부산지역 9개 고등학교 연극반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치는 제32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주요일정

- 5월 23일(수) 문현여자고등학교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 5월 24일(목) 부산여자고등학교 '죽은 시인의 사회'
- 5월 28일(월) 경남여자고등학교 '죽은 시인의 사회'
- 5월 29일(화) 한국과학영재학교 '탑과 그림자'
- 5월 30일(수) 화명고등학교 '탑과 그림자'
- 5월 31일(목) 남산고등학교 '사랑하기'
- 6월 1일(금) 부산정보고등학교 '맹진사댁 경사'
- 6월 5일(화) 만덕고등학교 '죽은 시인의 사회'
- 6월 8일(금) 개성고등학교 '데스데이'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1인 4매에 한해 15%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09년 국내 초연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삼총사'는 17세기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무대와 다이내믹 한 검술 장면, 브라이언 아담스의 'All For Love'를 메인 테마로 한 감미로우면서도 웅장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 당시 흥행 돌풍에 큰 기여를 했던 신성우,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를 비롯해 손호영, 김준현 등 새로운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시크릿 쥬쥬'

일 시 6월 6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4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
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바위처럼 1577-4868



공주가 되고 싶은 소녀들의 꿈을 도와주는 귀염둥이 요정 쥬쥬의 이야기를 그린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시크릿 쥬쥬'.

지난 2015년 33회 공연, 누적관객 23,000여명을 기록한 '시크릿 쥬쥬 레인보우콘서트'의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쥬쥬를 포함한 4명의 주인공들이 시크릿 플라워 밴드의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겪는 갈등과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로서는 드물게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면서 환상적인 노래와 춤이 생동감있게 펼쳐진다.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라라랜드'**

일 시 6월 27일 수요일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4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무료영화상영회.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6월 상영회에서는 아카데미상 14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최우수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 주제가상, 미술상을 수상한 뮤지컬 로맨스 코미디영화 '라라랜드'를 상영한다. (감독/데미미언 쟈젤, 상영시간 128분, 12세 이상 관람가)

**앤서니 브라운 체험뮤지컬
신비한 놀이터**

일 시 6월 9일-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월리석 5만원, 고릴라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바위처럼 1577-4868



세계적인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 이야기를 뮤지컬 공연과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신비한 놀이터'.

지난 2000년 동화작가 최고 권위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은 기발한 상상력과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표현, 세밀하고 이색적인 그림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사로잡아왔다.

앤서니 브라운의 공식 라이선스 첫 공연이자 뮤지컬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을 제작한 KCMI의 첫 KIDS 프로젝트로, 사라진 아빠를 찾아 거울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토비와 윌리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18 페스티벌 뮤지컬
숲의 요정 페어리루**

일 시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7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주)엠플러스 1544-3901



KBS Kids, 디즈니채널 등 어린이채널에서 방송되어 첫 방송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어린이들 사이에 '요정' 바람을 일으킨 동명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숲의 요정 페어리루'.

이번 무대는 신비한 요정의 나라 리틀 페어리루를 배경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스토리와 함께 환상적인 무대효과로 요정의 신비로운 세계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구현하며 높은 퀄리티의 음악과 완성도 높은 안무로 애니메이션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전은지 플루트 클래스 연주회

일 시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전은지클래스 010-5327-6025



프로젝트 앙상블 Flute's 리더로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의 제자들이 마려하는 클래스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초등학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그의 제자 14명이 그동안 갖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출연/김성민(신라대 4학년), 오영은(동의대 4학년), 장재우(신라대 2학년), 박보미(구서여중 1학년), 호이리(신라대 3학년), 김예린(동의대 2학년), 이우진(두실초등 4학년), 장정우(신라대 2학년), 장진서(중앙중 3학년), 김혜민(신라대 3학년), 김태영(혜화초등 6학년), 송지원(금성초등 6학년), 황솔이(신라대 4학년), 김지민(동의대 대학원 1학년)**

김영임의 소리 효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5:3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주)KBS비즈니스 1644-1702



지난 1974년 '회심곡' 안창앨범으로 데뷔한 후 오직 소리만의 한길을 걸어온 명창 김영임의 소리 효 공연. 국악에 드라마와 퍼포먼스를 가미한 국악뮤지컬인 '김영임의 소리 효' 공연은 국악공연으로서는 유일하게 20여년간 130여개 도시, 300회가 넘는 공연으로 객석점유율 92%, 누적관객수 110만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명품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음악과 김영임의 제자들로 구성된 민요팀, 화려한 춤사위로 무대를 수놓을 무용단, 그리고 실력있는 배우들과 코미디언 이상해가 출연,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국립부산국악원 신진예술인발굴 청춘국악열전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예술감독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차세대 국악인 7명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권민창·영남대학교)
가야금 협주곡 '짐죽파류'

가야금산조(김사흔·부산예술고등학교)
거문고 협주곡 '달무리'(서민정·경북대학교)
가야금 협주곡 '한오백년'(김소정·부산대학교)
해금 협주곡 '활의 노래'(김지수·부산대학교)
앙금 협주곡 '바람의 노래'(조재은·부산예술대학교)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한승윤·경북대학교)

아트뱅크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연주회 II Ottimo Trio 리사이틀 '헌정'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의 대표적인 클래식 전문 공연기획사인 아트뱅크코리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연주회 두 번째 무대. 원숙한 음악성과 대가적 기풍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과 부드러운 감수성과 친근한 음악성으로 청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 그리고 풍부한 감성과 음악적 균형으로 매 연주 때마다 열정적인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프로젝트 트리오인 'Ottimo Trio'가 남미의 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와 피아노 트리오의 정수인 차이콥스키 '피아노 트리오'로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8기 향상음악회

일 시 6월 3일 일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 010-2562-6561



단원 개인의 리코더 연주 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18기 단원들이 슈베르트 '군대 행진곡'을 리코더 앙상블로 들려주며 Prowo, Handel, Sammartini, Telemann과 같은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알토 리코더 2중주 소나타를 선사한다. 이밖에 19기 단원들이 들려주는 '써머 호핑', '남쪽으로'를 비롯해 연주반 단원들이 선사하는 포레의 '파반느',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제3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일 시 6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음악협회 634-1295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매년 5월 열리는 제32회 부산청소년음악제. 경남공고원드오케스트라(지휘/정두환),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지휘/정욱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을 비롯해 제45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 **해설/박선영, 최준하**
● **출연/경남공고원드오케스트라,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채원(성악), 김관우(바이올린), 장한새(피아노), 손장원(트럼펫)**

바리톤 이규원 독창회

일 시 6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이규원 010-2429-4316



미국 필라델피아 'Opera Libera' 오페라단 단장이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규원 독창회. 한양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을 배출한 AVA에서 아티스트로 활약한 이규원은 미국 Annapolis 국제콩쿠르 입상과 테네시 오페라 콩쿠르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김멜센터에서 푸치니 오페라 '에드가'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미국과 이태리, 한국 등에서 40여편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 피아노/추원주

지휘자 이성훈의 음악여행 친구들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일 시 6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010-3586-1938



부산대학교 합창지도 교수,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 합창단, 뽀레나 앙상블, 부산Bravo합창단, 동래구 옥샘합창단 상임지휘자, 중앙성당 세실리아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이성훈이 합창지도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음악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10명의 성악가들이 1부 한국가곡에 이어 2부에서는 세계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문수현, 김심현, 김민정, 이윤미, 이도경
- 테너/배부현, 이희재, 이영찬, 김용태, 이양규
- 피아노/노은주, 구화진
- 진행/홍정화

제14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여름밤의 피아노 산책

일 시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010-4894-9533



부산에서 교육과 연주활동을 하는 동의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대학원생들로 결성된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의 정기연주회.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정통 피아노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음악을 연주, 발표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름밤의 피아노 산책'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의 강렬한 리듬과 다양한 화성들이 펼쳐지는 피아노 선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본다.

- 연주/권경미, 서주옥, 신진희, 최진현, 오서향, 조은주, 박정남, 박희정, 김아영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브런치 '도시'

일 시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브런치는 매달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지는 영화를 선정,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일상과 영화 속 예술을 신선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그 영화의 OST를 초대 아티스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도시'라는 주제로 열리는 6월 마티네콘서트에서는 김정범이 직접 음악감독을 맡은 영화 '멋진 하루(감독/이윤기, 2008년 제작)'를 통해 영화 속 서울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무지크바움 2018 소통 재즈 페스티벌

일 시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10% 할인, 단체 10인 이상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6월 8일 리더 탁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피아니스트 전용준과 재즈베이스스트 신동하, 그리고 보컬 최소진으로 구성된 탁경주 퀸텟의 무대에 이어, 23일에는 확고한 음악색깔을 지닌 재즈 보컬리스트 Jamba OJ를 중심으로 성기문 퀸텟의 재즈베이스스트 강성민, 재즈피아니스트 최은정과 폴란드 재즈 드러머 Piotr Pawlak로 구성된 Jamba OJ 퀸텟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개성 넘치는 실력파 재즈 팀의 연주를 가까이에서 감상함으로써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우리의 동요와 가곡을 노래하는 나라여성합창단 연주회

일 시 6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나라합창단 총무 김태임(010-2913-6654)



지난 2006년 11월, 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나라여성합창단의 무대.

'아리따울 나, 소리 얼힐라'의 뜻을 지닌 나라여성합창단은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한·일 조인트 콘서트를 통해 음악 교류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지휘자 조경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나라여성합창단의 무대와 더불어 미래 음악계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의 열정넘치는 무대와 양산 온누리교회 드림중창단의 성가곡 합창무대가 함께 펼쳐진다.

- 단장/강순요
- 지휘/조경규

기타공연장

2018년 부산현대음악앙상을 특별연주회 6인의 창작실내악의 밤

일 시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현대음악앙상 010-7177-1881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음악감독으로 부산의 젊은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현대음악앙상을 특별연주회.

창단 이후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음악 장르를 탁월하게 해석하며 전문음악인들로부터 호평과 주목을 받아온 부산현대음악앙상은 특히 창작작품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히며 작곡가와 청중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음악을 지향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임지훈, 김범기, 오세일, 박주희, 권유미, 이규봉 등 작곡가 6명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장예지(플루트), 고아라(바이올린), 곽대희(첼로), 김진희(피아노), 황남용(클라리넷)

러시아 가곡과 아리아의 밤 러시아 그 광활한 대지의 노래

일 시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청소년 4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소프라노 우수연, 황성희,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바리톤 남완, 황철영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의 성악가들과 해설이 함께하는 러시아 음악의 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 린스키 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무소르그스키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러시아 가곡을 통해 러시아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 소프라노/우수연, 황성희
메조소프라노/강희영
바리톤/남완, 황철영
피아노/알렉산드르, 김하림
해설/김유선

복스앙상을 창단 10주년 기념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복스앙상 010-3576-9495



천주교 부산교구 남성들로 구성된 무반주 다성음악을 연주하는 복스앙상을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지난 2007년 5월 창단한 복스앙상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성음악미사봉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All Together Choir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부산가톨릭음악협회 송년미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파해왔다. 앙상블명인 'VOX'는 라틴어로 '목소리(Voice)'라는 뜻이다.

- 지휘/이철성 피아노/김효성
특별출연/테너 장지현, 소프라노 박현진,
움첸바오케스트라, 아마빌리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월, 1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20일(650회) 헤븐싱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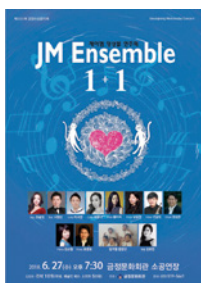
'Fall in Music'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을 대표하는 남성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헤븐싱어즈의 무대.

지난 2014년 결성된 헤븐싱어즈는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프로그램과 웅장함과 부드러움을 지닌 남성앙상블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헤븐싱어즈는 그동안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스페이스 옴 200회 기념 초청연주, 산만디음악회, 울주문화회관 초청공연, 기장 원자력발전소 야외음악회, 부산음협 특별연주 등 전국을 무대로 매년 60여회의 크고 작은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아카펠라(영혼의 울림)/Madrigal, Negro spirituals 가곡(시와 노래의 만남)/첫사랑, 시간에 기대어 팝&재즈, 크로스오버 뮤직(공감 그리고 힐링)/Fly me to the moon, volare, I believe



27일(651회) 제이엠 앙상블 연주회 '1+1'

소프라노 조윤정, 바리톤 시영민, 첼리스트 박서연, 하유나, 플루티스트 황미리, 김승연, 오보이스트 구강모, 권성운으로 구성된 제이엠앙상블의 무대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알비노니/두대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작품 9 제6번

피아졸라/상어, 겨울

박성현/숨바꼭질

비발디/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사단조 등 수록

- 피아노/김소형, 유영욱
해설/김유선
찬조출연/팅커벨 중창단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제51회 정기연주회 2018 호국보훈의 달 '평화음악회'

일 시 6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010-2323-6589,

www.neophil.org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산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평화음악회'.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첼리스트 문주원의 협연으로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타이스 명상곡, 차르다시, 콜니드라이, 자크린의 눈물, '운명의 힘' 서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
협연/김주영(바이올린), 문주원(첼로)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그 다섯 번째 이야기 향수_희로애락

일 시 6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의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010-3589-6878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가 순국선열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하는 무대.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태평성대, 로·일제강점기, 애·6·25 전쟁, 락·즐거움 부산이라는 테마로 대취타 연주에서부터 태평무, 가야금병창, 어린이군가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 총괄감독/김현주 ● 무용/판문화예술단
- 연주/다원국악관현악단(지휘/한영길)
송용창(아코디언), 김현주(가야금병창)
우원석(테너), 이수정, 이미숙(소프라노)
한영길(대금), 안홍철(장쇄반) 외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앉아서 세계속으로 장밋빛 인생 '프랑스 음악여행'

일 시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커피제공)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김재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와 떠나는 행복한 세계여행 콘서트 '앉아서 세계속으로'.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음악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6월에는 예술의 고장 프랑스로 음악 여행을 떠난다. 특히 작곡가 생상, 라벨, 드뷔시 등 뛰어난 음악가들을 배출한 프랑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플루트, 피아노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6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난 1902년 창단되어 114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교향악단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을 넘나들며 전통에 걸맞는 수준높은 연주로 명성을 쌓아왔다.

- 지휘/김현국
- 소프라노/천정주
- 피아노/최소운

연극 | Play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6회 프롬나드 콘서트 '비목(碑木)'

일 시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6월 무대.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는 부산 경제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목(碑木)'이라는 주제로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오보에 단원인 김미영의 협연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오충근 ● 협연/김미영(오보에)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3월 15일(목)-6월 17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모든 연인들을 사로잡는 리얼공감 로맨틱 코미디극.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전 여자친구 시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고, 지후는 달콤했던 연애를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기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못된 '남친'을 넘어서 '쓰레기'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데...

자메이카 헬스클럽 - 부산

일 시 5월 17일(목)-7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6/6일 오후 3:30, 6: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젊은 남녀가 폐업 위기에 놓인 헬스클럽에서 가슴 설레는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극 '자메이카 헬스클럽'. 트레이너 황강봉은 폐업 위기에 놓인 아버지 소유의 '자메이카 헬스클럽'을 살려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이때 물의를 일으키고 연계를 떠난 지성미가 한달 안에 체중을 빼주면 헬스클럽의 체무관계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요가강사 최미화가 황강봉을 설득해 살빼기 프로젝트에 돌입하는데...

- 작/서진원 ● 연출/김재한

기타공연장

신의 아그네스

일 시 5월 18일(금)-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목요일 공연없음) NC백화점 부산대점 6층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말과말사이 070-4007-3905



1982년 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온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여성들의 에쿠우스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신의 아그네스'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수녀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아그네스의 행위를 종교적 기적으로 해석하는 수녀원장과 정신 착란에 의한 범죄로 해석하는 여의사의 대립을 통해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 작/존 필리어
• 번역/홍서희 • 각색, 연출/이호영
• 출연/강경숙, 안성혜, 정아린, 신민경

(사)극단 에저또 검정고무신2

일 시 5월 22일(화)-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에저또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사)극단에저또 852-9161



부산 연극 최초 시리 즈물로 탄생된 극단 에저또의 '검정고무신 2'. 지난 2007년 창작초연 후 그동안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을 무대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검정고무신'은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검정고무신2'는 육남매를 버리고 도망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미워도 가족간에 끊어질 수 없는 질기고도 끈끈한 사랑과 보고만 있어도 먹먹해지는 남매들의 우애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준다.

극단 해풍 2018 기획공연 타미카레드

일 시 5월 25일(금)-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창조문화협력센터 소극장 624

입장료 일반 2만원, 14세이상 청소년 1만5천원 (15세이하 관람불가)

문의 극단 해풍 070-7346-7146, 010-9859-4476



로봇과 인간의 사랑 그려낸 소설가 정광모의 동명 소설을 각색, 연출한 극단 해풍의 '타미카레드'.

주인공 한기철은 애인인 유라와 함께 식당 타미카레드를 방문한다. 유라는 한기철에게 전에 사귀던 여자에게 대해 묻고, 계속되는 추궁에 지친 한기철은

유라가 애인 대행 로봇인 '타소'였음을 밝히고 작별을 고하는데... '타미카레드'는 로봇과 정해진 기한 동안 연애를 한다는 설정을 통해 진실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해본다.

- 각색, 연출/이상우

코믹연극 달동네

일 시 5월 25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달동네'.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중 심한 화상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시간 가족들을 찾아 옛장사를 하며 전국을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은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6월 1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6/27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KNN 664-7880



택시기사 존 스미스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워블던과 스트리트햄을 오가며 행복한 이중생활중이다. 메리와와의 사이에서 딸 비키를, 바바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케빈을 둔 40대 가장 존에게 어느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자신의 아이들로 인해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며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라이어 그 후 20년'은 특히 다른 '라이어' 시리즈 보다는 롤리코스터를 탄 듯 속도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2018 뽕파게이트 - 부산

일 시 6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R서 8만원, S서 6만원, A서 4만원

문의 (주)WSM 1566-5490



코미디와 함께 10년만에 돌아온 2018 新 국민 마당놀이 '2018 뽕파게이트'. 10년만에 돌아온 마당놀이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심봉사의 숨겨놓은 아들, 불효막심의 대명사 '심창'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인당수 사건'으로 심봉사가 받은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심창과 기획 사기단 '뽕파와 황봉사'의 불꽃 튀는 두뇌 배틀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무대가 펼쳐진다.

'영구' 심형래를 주축으로 마당놀이의 대명사 윤문식, 최주봉, 김진태와 탤런트이자 가수로도 활동하는 만능 재주꾼 김성환 등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직장인 극단 제7회 워크샵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 시 6월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무료
문의 직장인 극단 010-6600-6937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태우고 있는 직장인극단의 7번째 워크샵 무대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세대별 커플의 사랑을 따뜻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섯가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옴니버스 연극이다.

- 작/위성신 • 각색, 연출/정혁진
- 출연/장현수, 허운수, 류리나, 김민규, 하연주, 배태진, 박은정, 찰스, 김정아

공포 심리 미스터리 연극 흥터

일 시 6월 29일(금)-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이엠컴퍼니 070-4211-8879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지워버린 남자와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 같은 사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그린 공포심리서러 연극 ‘흥터’.

대학시절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등산을 가던 중 갑자기 지은이 돌연사하게 된다. 8년 후 두 친구는 지은이 죽은 그 산을 다시 찾아가나 등산 중 길을 잃게 된다. 가까스로 발견한 산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은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은 결국 그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가는데...

시가익는마을 금속씨의 여름

일 시 6월 24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시가익는마을 회장 정영혜 010-9811-8917



시를 사랑하고 즐겨 낭송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시가익는마을이 마련하는 시극공연 ‘금속씨의 여름’.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소재로 출산장려운동의 의미를 담은 ‘금속씨의 여름(6남매의 엄마 이야기)’을 선보인다.

- 작, 연출/박진희

무용 | Dance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일 시 6월 12일 화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6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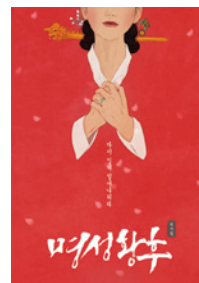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직접 찾아가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전하는 구(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최근 구(區)문화회관 순회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양한 춤 레퍼토리를 통해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 예술감독/김용철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뮤지컬 명성황후

일 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월 1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9천원,
A석 6만6천원
문의 (주)에스제이엔터 1599-2005



누적 공연회수 1,300회, 누적관객 18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창작뮤지컬의 신화 ‘명성황후’.

지난 1995년 초연된 ‘명성황후’는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서거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대형 창작뮤지컬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맞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녀의 삶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명성황후와 고종 역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최현주, 박완, 오종혁, 최우혁, 임정모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명성황후와 고종 역을 맡아 화제가 됐으며 최현주, 박완, 오종혁, 최우혁, 임정모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한다.

2018 춤과 소리의 하모니 박경량의 춤과 함께하는 6월의 무도회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박경량류영남교방정춤보존협회
010-3585-6122, 010-7314-0260



춤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콜라보 무대를 통해 전통 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박경량의 춤과 함께하는 6월의 무도회. 무용평론가 이병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이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전통을 구축해가

고 있는 교방춤의 대가 박경량을 비롯해 서도소리보존회 이사장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평산소놀이꾼 예능이수자 박정옥,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최은호,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보존회장 이병욱 등 30여명의 춤꾼과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른다.

기타공연장

영화 | Movie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특별전
에르마노 올미 & 마르코 벨로키오

일 시 5월 27일(일)-6월 17일(일)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특별전으로 마련되는 ‘에르마노 올미 & 마르코 벨로키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유네스코가 지난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영화, 문학, 음악, 공예, 미디어아트, 음식, 디자인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 2014년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네오리얼리즘의 전통을 계승한 이탈리아 영화감독 에르마노 올미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마르코 벨로키오의 작품을 소개한다.

2018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일 시 6월 21일(목)-24일(일) 영화의전당 일대
문 의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회 714-6948
www.bfff.kr



영화에 음식의 맛을 더한 새로운 영화축제 2018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불의 미학, 바비큐!’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상영과 더불어 영화 속 음식을 배워보는 맛있는 수업 ‘푸드테라스’, 그리고 영화 속 음식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전국의 다양한 푸드트럭과 부산 셰프들의 팝업스토어, 포트럭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제7회 아랍영화제

일 시 6월 1일(금)-6일(수)(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영화의전당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국내 유일의 아랍영화제로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내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아랍영화를 만날 수 있는 아랍영화제.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근 칸영화제 등 국제 규모 영화제에서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에 아랍영화의 위상을 높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랍영화의 최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 ‘아라비안 웨이브’와 동시대 아랍여성의 목소리를 부각하는 특별섹션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를 통해 아랍의 동시대성에 주목하는 1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콘서트 | Concert

2018 부산 빅루프 뮤지컬 콘서트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문 의 영화의전당 780-6000



매년 봄을 맞이해 영화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야외 음악 콘서트 ‘2018 빅루프 페스티벌’. 지난해 장사익, 조수미에 이어 올해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박은태, 옥주현, 이견명, 이지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안나 카레니나, 노트르담 드 파리, 닥터 지바고, 지킬 앤 하이드, 모차르트 등 대작 뮤지컬 주역들이 직접 부르는 뮤지컬 넘버를 오케스트라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작은영화콘서트_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그을린 사랑

일 시 6월 19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www.bsart.or.kr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서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6월에는 레바논 내전을 배경으로 전쟁이 낳은 비극을 그린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그을린 사랑(캐나다, 2010년, 상영시간 130분, 만 18세 이상 관람가)’을 상영한다.

이승환 ‘공연의끝 : High End’

일 시 6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4만3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 의 (주)하늘이엔티 02-333-9009

영화 맘마미아2 개봉 기념
아바걸스 월드투어 콘서트

일 시 6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주)라엘엔터테인먼트 1544-3460

2018 ‘만9,900원의 행복’
유리상자콘서트-부산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부산홀
입장료 VIP석 2만9천9백원, R석 1만9천9백원,
S석 9천9백원
문 의 (주)늘푸미엔티 1588-2532

행사 | Event

팬텀vs팬텀 콘서트
포르테 디 콰트로 x 포레스텔라

일 시 6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오리움

입장료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A석 7만7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와 시즌 2 우승팀인 포레스텔라의 역대급 콜라보 무대 '팬텀 vs팬텀' 콘서트. 한국을 넘어 크로스오버의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포르테 디 콰트로, 신선한 장르와 편곡으로 한층 더 진화된 크로스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는 포레스텔라가 만들어내는 극한의 서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포르테 디 콰트로의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포레스텔라의 진화된 크로스오버 음악까지 남성4중창의 최강자들이 펼치는 최상의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12만원(3개월 수강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부산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 클래식음악해설가가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클래식음악 최신 연주회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품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AIDA' 리카르도 사이, 라 스키타라 실황 크로스오버뮤직의 매력-Vangelis 그리스 콘서트 헨델-관현악모음곡 '왕궁의 불꽃놀이& 수상음악' 발트뷔네 콘서트-라틴 아메리카 나이트 등

무지카아트홀 성악 아카데미
전상철 가곡교실

일 시 매주 월요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무지카 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7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더뮤직과이어, 더울림합창단 지휘자, 무지카아트홀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가곡교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4차례 진행되는 이번 가곡교실에서는 한국가곡 및 세계유명가곡을 해설과 함께 배워볼 수 있다.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6월 아카데미

일 시 6월 4일(월), 5일(화), 11일(월), 12일(화),
18일(월), 19일(화), 25일(월), 26일(화)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 · 시네바움
010-2774-3455

- 4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만나는 일본의 미학(7) 하이쿠의 원류, 영혼구제의 연령신앙(言靈信仰)와 카(和歌)의 미학 '요괴의 저주와 권력을 거부한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5일(화)** 오후 7:30 사랑과 죽음의 예술사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 11일(월)** 오후 7:30 생각근육 생각그릇_한자의 사고력
- 강사/박기철(경성대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 12일(화)** 오후 7:30 이성훈의 예술과 사유(18) 터키 리키안웨이(4) '레툰에서'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내서재대표)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나라사랑 음악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 5일(657회)** 각 나라 국가 1(아시아, 중동)
- 12일(658회)** 각 나라 국가 2(유럽, 오세아니아)
- 19일(659회)** 각 나라 국가 3(아메리카, 아프리카)
- 26일(660회)** 이달의 책읽기 '백 년 동안의 침묵' (박정선, 푸른사랑)

18일(월) 오후 200 컬러 앤 필름(3) '색으로 만나는 6월 '신록의 고통과 반전으로 아롱진 영화, 어툰먼트'

강사/박미송(떠스널칼라전문가)

18일(월) 오후 7:30 광근수의 클래식 투어(20) 광근수의 오페라 온스테이지(2)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어리석은 처지가 부른 비극의 노래'

강사/광근수(음악평론가)

19일(화) 오후 7:30 소설가의 여행법(1)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 소설의 장소성 파리, 콩브레, 발백책 '무엇보다 소설을'(함정임,예담, 2017년)

강사/함정임(소설가, 동아대학교 교수)

25일(월) 오후 7:30 과학이 만난 영화(3) '킵손의 도전, 블랙홀, 원형 '새로운 차원의 영화, 인터스텔라'

강사/이창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26일(화) 오후 7:30 스페인, 포르투갈 예술기행(3)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자취를 따라가는 포르투갈 예술기행(리스본, 포르투, 코임브라):파두의 전설 이탈리아 로드리게스, 영화 '리스본형 야간열차',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 영화 '파두'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양광정대학교수)

기타공연장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6월 12일(화), 13일(수), 18일(월), 22일(금), 25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2일 오후 7:30 박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0강 '모차르트를 뛰어넘은 천재, 재기와 유모의 거장 생상스'

강사/박근수 (음악평론가)

13일(수) 오전 10:30 색이 삶을 말하다 특강 '무지개색으로 펼쳐지는 영화와 명화 이야기'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18일(월) 오후 7:30 발레가 있는 무대 제6강 '발레이야기 6 : 컨템포러리 발레'

강사/노영재(무용학 박사)

전시 | Display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I 모던과 혼성 1928-1938 II 피란수도 부산:절망 속에 핀 꽃

일 시 3월 16일(금)-7월 29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 근대미술의 태동기인 일제시기부터 전반기 문화의 중심이 된 피란수도 부산까지 부산의 문화예술, 사회, 역사를 조망하는 특별전.

부산에 근현대 미술이 자리 잡은 개항 이후 일제시기와 부산의 현대적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피란수도 시기를 조명하는 개관 20주년 기념전과 부산의 1세대 서양화가 김중식 선생의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서동완, 신누리 2인展

일 시 5월 15일(화)-6월 15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22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5강 '이탈리아 남부지역 여행'

고대 로마시대부터 비옥한 토지와 따뜻한 날씨로 농작물이 풍성한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 예술을 만나다' 여섯 번째 강좌.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5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16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에 나, 패션으로 말하다 3'

생활속에서 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리빙컬러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해외명품브랜드'편을 소개한다.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제12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부산 송도케이블카 관광객을 위한 시낭송음악회

일 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아남공원 야외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김덕용展 '결-사이 간'

일 시 5월 26일(토)-7월 27일(금) 서울아트스페이스 전관
문의 서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미사키 카와이 국내 첫 특별展 플러피 데이즈(FLUFFY DAYS)

일 시 5월 30일(수)-6월 24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라 그랑드 일루전

일 시 6월 29(금)-7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7:30(월요일 휴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전 세계 정상급 마술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술의 향연을 펼치는 특별한 무대 '라 그랑드 일루전'.

제27회 세계마술챔피언십을 축하하는 사전 특별 공연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수준의 마술사와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일류로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마술사 그리고 쇼맨들이 함께하는 매직 갈라쇼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2018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일본현대사진의 원류

일 시 6월 9일(토)-8월 2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nmuseum.kr



고은사진미술관이 세계사진의 흐름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해외교류전 '일본현대사진의 원류'展.

일본사진의 전환기를 연 토마스 쇼메이, 일본과 일본인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츠치다 히로미, 감성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 예술과 외설 사이를 오가며 개인적인 사진을 일본에 유행시킨 아라키 노부요시, 나리타 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농민들을 기록한 키타이 카즈오,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사진가 이시우치 미야코 등 일본사진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5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오늘, 그림이 말했다

우정아 지음 / 휴머니스트 / 400p / 2만 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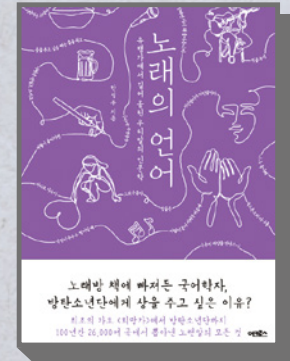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우정아 교수가 인생이라는 카테고리에 따라 2~5개의 작품들을 엮어서 만든 42편의 이야기. 저자는 이과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친다. 이 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미술과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 이야기를 하며 가끔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학교와 미술관 등을 오가며 부지런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학생들이 남긴 수업 후기에서 그 동기를 찾기도 한다. “여자 친구와 미술관에서 근사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학생들의 후기는 우리가 미술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생각을 보여 준다. ‘미술’이란 결국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교양’인 것이다. 미술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즐기는 것임을 말해주고 싶은 저자의 마음은 책의 부제에서도 나타난다. ‘생활인을 위한 공감 백배 인생 미술’이라는 부제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 여성, 사랑, 우울, 소비, 실패, 이상, 죽음 등의 주제에 맞춰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그림들로 이끌어주는 책은 미술이 우리 삶의 공간에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M.T. 앤더슨 지음, 장호연 옮김 / 돌베개 / 546p / 2만 2천원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쇼스타코비치의 ‘2번 왈츠’를 들으면 “아, 이 음악!” 하며 알아챌 것이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아이즈와이드 셋’ 등의 배경음악으로 익숙한 옛 소련 작곡가 쇼스타코비치(1906~1975)의 ‘2번 왈츠’는 감미롭고 아름답다. 하지만 ‘2번 왈츠’는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이 아니다. 쇼스타코비치는 15곡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이 중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그의 삶을 대표하는 작품은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이다. 웅장한 피날레가 특징인 이 곡에는 특별한 탄생 일화가 있다. 이 책은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에 얽힌 이야기와 쇼스타코비치의 파란만장했던 삶, 당시의 역사를 박진감 넘치게 서술한 책이다. 1941년 9월,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국방군이 쇼스타코비치가 나고 자란 도시 레닌그라드를 포위했다. 서양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파괴적인 포위전의 시작이었다. 2년 반 동안 폭격과 굶주림과 추위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죽었다.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독일 나치와 소련 소비에트 독재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는 처지였다. 하지만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을 위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교향곡 7번을 만들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느껴볼 수 있다.



노래의 언어

한성우 지음 / 어크로스 / 364p / 1만 6천원

누구에게나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이 한 두 곡씩은 있다. 멜로디가 좋아서, 그리고 노랫말이 좋아서, 이유도 여러 가지이다. 기쁠 때도, 괴롭고 힘들 때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노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사용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려준다. 국어학자인 한성우 교수는 노랫말 정리를 위해 국내 최대의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인 T사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했다. 노래방 기계라면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1923년 ‘희망가’부터 2016년 최근의 노래까지 망라해 2만 6250곡의 노래를 모았다. 제목만 원고지 2,600매, 가사는 7만 5,000매에 달했다. 저자는 언어 형태소분석기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미와 특징을 분석했다. 우리 가요의 제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 1위는 바로 ‘사랑’이다. 최초로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노래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고 읊은 윤심덕의 ‘사(死)의 찬미(1926)’이다. 노래로 가장 많이 불린 시로는 김소월의 작품, 제목과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지명은 ‘서울’ 등 흥미로운 분석이 많다.

◆ 부산시립예술단 6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6월에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6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구(區)문화회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들에게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을 전하는 ‘구(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이 펼쳐진다.



예전

- 6월 12일(화) 1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_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 6월 20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_교향악단 ‘부산광역시청 로비콘서트’
- 6월 21일(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_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 6월 26일(화)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_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 6월 27일(수) 14:30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_무용단 ‘제20회 무연고 홀로노인을 위한 위로대잔치’
- 6월 28일(목) 19:30 사상 다누리센터 다누리홀_무용단 ‘사상문화원과 함께하는 우리 춤으로 푸는 몸의 수다’

◆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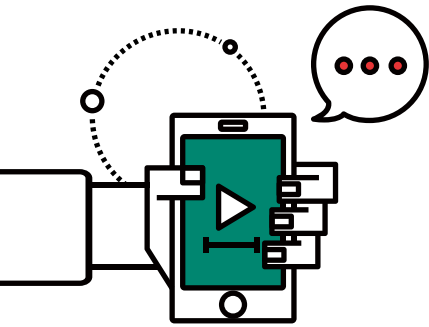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해 오고 있는 석포교회(담임목사 채문식)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단체 가입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 이재일)이 병원 가족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가입한 데 이어 혜화여자고등학교(교장 류진숙)와 해강고등학교(교장 김봉련)가 올해 처음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부산시민회관 극장무대체험 ‘백스테이지투어’안내

우리가 관람하는 무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부산시민회관 극장무대체험 ‘백스테이지투어’를 신청해보세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운영일정** 기간: 4월~6월, 9월~11월(매월 마지막 주간/일요일~토요일)
시간: 오전 10:00~12:00
※ 무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참가비용** 무료
- 참가인원** 선착순 30명(초등학생 체험 시 반드시 성인 1인 동반 신청)
※ 투어 프로그램 특성 상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
※ 단체 참여 희망 시 별도 문의 요망
※ 정원 미달 시(최소 인원 10인) 일정 조정 또는 취소
- 참가대상** 부산시 거주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yjh@bscc.or.kr) 접수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팀(630-5231-6)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 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소리와 '화려한 만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대구시립국악단 합동교류공연 '화려한 만남 II'



손마정

<https://instagram.com/sandyjmj>

틈만 나면 공연을 보러 가는 편이지만 국악 공연과는 인연이 자주 닿지 않았다. 그래서 5월 공연 일정 중 국악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본 공연이 바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의 합동 교류 공연 '화려한 만남 II'였다. 대극장을 꽉 채운 악기들이 조율을 시작할 때부터 설레던 가슴은 첫 번째 곡인 '고구려의 혼 recomposed'을 지나 마지막 곡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요동치는 바람에 두 손을 가슴 위로 꼭 모으고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앞서 말한 첫 번째 곡은 정말로 고구려의 기개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 웅장하고 열정적이었다. 이어진 대금산조에

서는 대금 특유의 구슬프면서도 절도 있는 가락이 가슴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경기도 당곳에 의한 타악 협주곡 '불꽃'에서는 사물놀이의 힘과 매력까지 여과 없이 볼 수 있었는데, 몸을 가만히 두기가 힘들 만큼 신명나는 무대였다. 이 글에 자세히 담지는 못했지만 가야금 산조와 성악가들의 무대까지 다채로웠던 이번 공연은 나와 우리 소리와 '화려한 만남'으로 기억될 것 같다. 공연장에서의 그 열기와 감동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국악 공연을 더 자주 찾아다니려고 한다.



최은미

<https://blog.naver.com/ddlqmdl1004>

평소 문화 공연을 즐겨보시는 엄마를 위해 2018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에 지원했다. 발대식 이후 지금까지 여러 공연들 가운데 4개의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이 공연들 중에서 이번 공연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의 합동 교류 공연 '화려한 만남 II'가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다. 공연 시작부터 무척 좋았다. 화려하고 웅망한 고구려의 기상을 잘 담아냈던 '고구려의 혼'. 편곡한 곡이라 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원곡을 찾아 들었다. 그리고 웅장하게 시작한 후, 내 귀를 자극한 '김동진류 대금산조 협주곡'은 이번 공연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단언한다. 마치 임금이 등장하는 듯한 연주에서 홀로 등장한

'대금'. 대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던데 말 그대로 대금 자체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곡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물놀이 공연. 사실 무대에서 사물놀이는 예상치 못했다. 함께 어울리며 흥을 주고 받는 사물놀이를 무대에서 보게 되다니...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금을 연주하던 분의 즐기면서 하는 연주가 매우 인상 깊었다. 보통 국악하면 판소리만 생각했는데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대금이 가장 많이 기억났고 그 외 관악기들 역시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해준 이번 공연에 감사로 보낸다.

해외공연 참관기

발트해의 보석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 공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에스토니아를 녹이다

글·사진 백경옥(부산시립예술단 서양음악팀장)



1·2 에스토니아 콘서트홀에서 열린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 공연

부산에서 7,377Km,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가는 길은 멀고도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5월 14일 한국 공연단을 대표해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위해 비행기에 오른 만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설렜다.

최근 한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끝없는 설원이 펼쳐진 겨울왕국 에스토니아가 등장하면서 에스토니아는 한국인들에게 조금은 알려졌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이다. 우리는 모스크바를 거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이를 수 있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에스토니아 공연은 2017년 외교부에서 2018년도 주요외교계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소속 문화예술공연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사업대상국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에스토니아 공연단으로 당당히 선정되어 발트해의 진주 에스토니아에 입성하게 된 것.

에스토니아 공연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노래로 독립을 이룩한 에스토니아의 역사였다. 이른바 ‘노래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은 1989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몰려든 2백여만 명이 넘는 군중이 탈린과 빌뉴스 사이의 가도를 점거한 채 손을 맞잡고 노래했는데, 그 행렬이 600km 이상 이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발트 3국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빠르게 독립할 수 있었다. 전체 인구가 130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에스토니아는 그동안 덴마크와 스웨덴, 러시아 등 수많은 강대국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노래로 자국의 문화를 지켜낸 나라라는 점에서 레퍼토리 선정에서부터 곡의 완성도를 위해 어느때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주하는 독립 100주년 무대는 1918년 2월 24일에 재정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얻어낸 에스토니아의 첫 독립을 축하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암석교회에서 공연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5월 12일 7시 김해에서 출발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현지시간으로 밤 11시가 넘어 탈린에 도착했다. 피곤을 느낄 겨를 없이 다음날 5월 14일 공연준비를 위해 함께 공연할 탈린 챔버오케스트라와 첫 연습을 가졌다. 한국 문화를 접하는 에스토니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어떻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리랑을 테마로 한 곡과 화려한 부채춤이 어우러지는 우리민요 모음곡,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뮤지컬 넘버, 에스토니아인들이 즐겨 부르는 자장가 등을 레퍼토리로 준비했다. 첫날 짧게 진행된 연습이었지만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와준 우리들을 반겨주었고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드디어 공연 당일, 900석 규모의 에스토니아 콘서트홀(1913년 개관)에서 탈린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특별 무대에 올랐다. 한국 정부, 지자체에서 준비한 첫 공연단으로 무대에 오르는 감동적인 순간, 이견룬 지휘자를 비롯해 28명의 단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공연 시작 전부터 에스토니아 국영방송에서 리허설 모습을 촬영해갔고 단원들은 'Tere(에스토니아어: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에스토니아 국영방송에 출연했다. 공연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30분간, 탈린챔버오케스트라가 30분간 연주한 후 15분간 합동 연주로 진행되었는데 에스토니아인 모두가 한국 한국 모든 레퍼토리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전체 900석 규모의 객석은 매진이었고 열광적인 박수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탈린챔버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진행된 우효원 편곡 '아리랑'은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북유

럽의 정서와 우리의 아리랑 선율이 어우러질 때 먼 타지에서 노래하는 단원들이며 3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포들, 함께 동행한 에스토니아 친구들에게도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아리나 한 씨와의 짧은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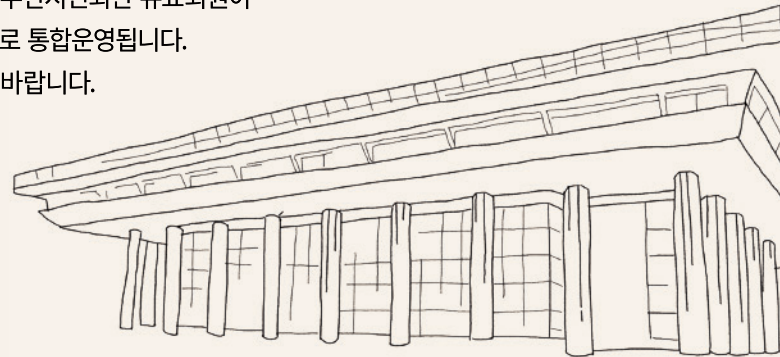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공연에 대해 주 핀란드 김수권 대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축하 공연은 에스토니아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4일 공연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일간 에스토니아에 머물며 그 인기를 실감했다. 메인 공연 외 15일은 탈린의 날을 기념해 프리덤 스퀘어에서 특별공연과 주 핀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K-POP' 페스티벌 축하공연, 16일은 에스토니아 다문화센터 방문해 고려인 아리나 한 씨와의 만남을 가졌고 탈린 21 학교를 방문, 10대들의 발랄함을 함께 느끼며 교류 기회를 가졌다.

아리나 한 씨와의 짧은 만남은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아리나 한 씨는 에스토니아 다문화센터에서 고려인동호회 회장을 맡아 한국 음식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아직 서툰 우리말에 답답함을 느끼며 단원들과 헤어지는 순간 아리랑을 함께 부르고 따뜻하게 포옹하며 한민족의 정을 나누었다.

에스토니아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북유럽의 중심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한국대사관이 없어 핀란드 대사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합창단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주 핀란드 대사관에서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행사 외 핀란드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무대를 기획, 5월 17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핀란드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암석교회에서 공연하는 영광을 안았다. 에스토니아도 그렇지만 핀란드에서 한국의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한 것 역시 처음 있는 행사였던 만큼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에스토니아에서 선보인 주요 레퍼토리 외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인들의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야'를 특별히 준비했다. 400석을 가득 채운 암석교회에서 '핀란드야'를 불러주는 한국의 합창단에 감동하며 연신 “Great!”를 외치는 핀란드인들을 보며 단원들은 노래하는 외교관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이 끊이지 않았던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45년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무대, 최고의 순간을 위해 노력해준 단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2017년 10월 통합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유료회원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회원가입

가 입 신 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방 문 신 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 매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수 령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관람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관람권 예매 후 가상계좌 입금은 기간 내에 미 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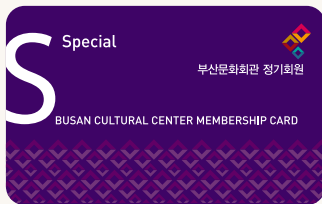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시 50%)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참여기회 제공(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VIP

- 연 회 비** 10만원
- 초 대 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6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5만원
- 초 대 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4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MEMBER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연 회 비** 3만원
- 초 대 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2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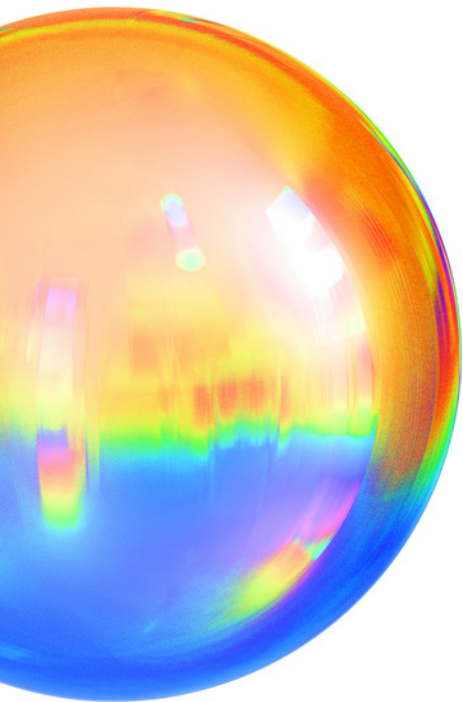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 '거장, 거장을 만나다' [종료]

3월 14일(수)-1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연주 : 주희성, 파스칼 드바이옹, 노경민, 김영호, 이미주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8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예약중**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 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종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김옥련 발레단 발레컬 '운수좋은 날' **예약중**

7월 17일(화) 오후 2:00, 18일(수) 오후 2:00,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인 4매, 회당 40매 선착순)

현진건 원작소설 '운수좋은 날'을 발레와 연극, 노래, 현대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탄생시킨 발레컬 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중기획 이사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명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이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2018년 5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퀸틴
블레이크

2018. 7. 7-
2018. 9. 30

WHEN I DRAW
I TRY TO DRAW
AS IF FOR THE
FIRST TIME.

I SUSPECT THE
WAY I DRAW
IS A BIT LIKE
ACTING.



MISTER
MAGNOLIA
1980. PEN. INK.
WATER COLOUR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 시리즈, 다섯 번째 전시

**QUENTIN
BLAKE**

장소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1, 2F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KT&G 상상마당

관람시간

월~일 11:00 - 20:00
(19:00 입장마감)

협찬

시공주니어

문의처

051.630.5232

협력

Quentin Blake's office

아시테지

in Busan

제1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2018.7.24(화) ~ 29(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24(화) ~ 25(수) 진짜, 고래?
7.28(토) ~ 29(일) I on the Sky
7.24(화) ~ 29(일) 해외동화
7.1(일) ~ 10.5(금) 연계프로그램

라룸베 무용단 | 스페인 & 펜돌로 세로 | 멕시코 공동 제작
다이나모 씨어터 | 캐나다
빨간 입술선생님의 소리로 보는 동화
찰리와 초콜릿 원화작가 '퀸틴블레이크'展

주최·주관
예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본부
인터파크,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bsccl.or.kr
051-630-5200

협력 아시테지 한국본부

2018

김연우
콘서트
熱音會



2018. 07. 14 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배급 : 디오뮤직, 달라잇컴퍼니주식회사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주식회사 공연마루
예매 : 클럽서비스,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문의 : 051-607-6000

연예기획

창작 뮤지컬

심시화

相思花

여의와 황세 그리고 유민공주

예술감독 곽종필 작 홍선주 연출 변진호

2018. 7.19(목)~21(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입장권 | 10,000원

| 예매 | <http://bscc.or.kr>

| 문 의 | 051)607-3125

| 스태프 | 작·편곡 강중환 안무 서승현 음악감독 이사라



NAVER TV



FACEBOOK



꼬등어의 상상력으로 일상에 감각을 입히다

DESIGN I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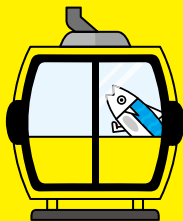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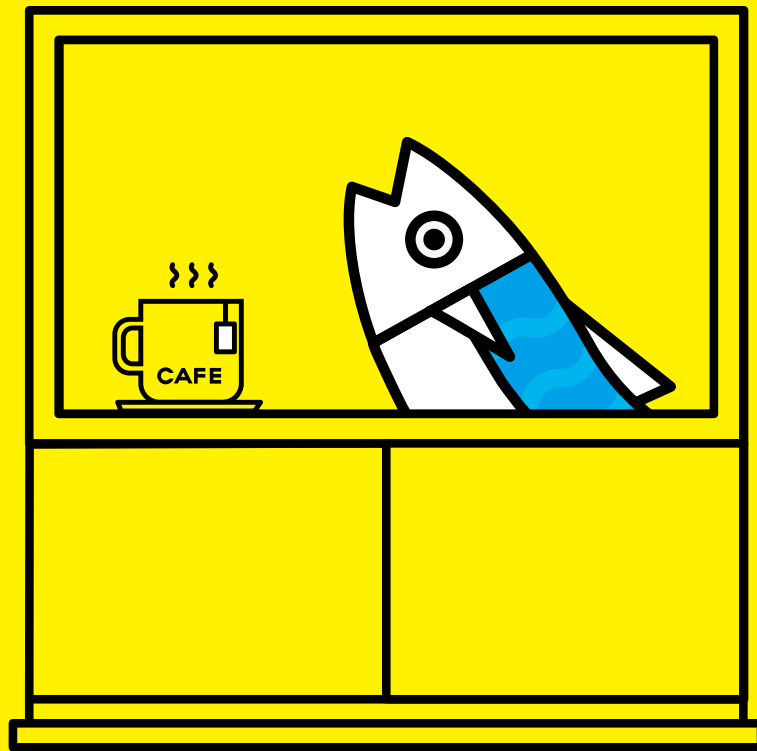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www.designiv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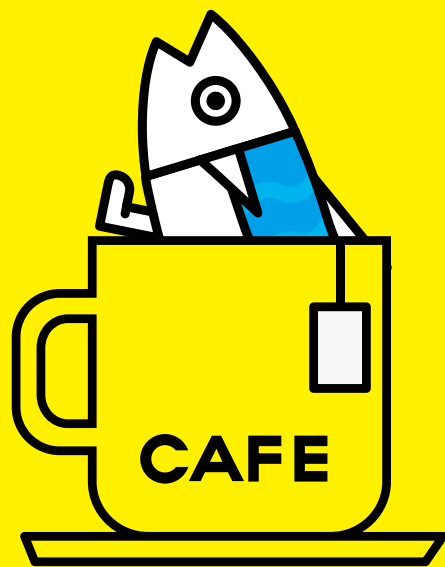
CAFE GGO DEUNG O

2018.05

GRAND O/P/E/N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매표소 내 꼬등어 카페 5월 오픈!



COMING SOON ◌



「孤酒忘態」

고즈고즈 망태

忘孤
酒態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특별출연 최진석
Jin-Seok Choi

2018.7.7(토) 5:00pm 주[酒]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 미하일 플레트네프

협연 | 에스더 유

“ONE OF THE WORLD'S TOP ORCHESTRAS”
— Gramophone
MIKHAIL PLETNEV & RUSSIAN NATIONAL ORCHESTRA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A. 글라주노프 모음곡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 J.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리단조, Op. 47 I. 스트라빈스키 불세

2018. 06. 27 WED PM 0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